

PSALMS IN KOREAN.

1906.

PRINTED FOR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BY THE FUKUIN PRINTING CO., LTD., YOKOHAMA, JAPAN.

시편

시편

복 있는자는 악 혼자의 의론대로 힝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 혼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률법을 줄거워하며 그 률법을 쥬야로 드리상하고도 다른 사람은 비컨대 시니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쪽차 열미를 미즈며 그 납사귀가 모르지 아니하고 그의 힝하는 일이 다 형통 허리로다

악 혼자는 그려치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들리는 겨와 것도다

그런고로 악 혼자들이 심판할 때에 서지 못하고 죄인들이 올 혼자의 회중에 서지 못 허리로다

대개 여호와께서 올 혼자의 길을 아시느니 오직 악 혼자의 길이 망하고

이방이 엊지 허야 소란히 족속들이 엊지 허야 혀된 일을 경영하느뇨 세상 님군들이 나려나고 제후들이 서로 의론 허야 여호와와 그 기름

시 이편

이

발은 이를 거역호며 그 뿐 설을 설코 우리 양은 줄을 버서 봉리세호니
하늘에 안즈신이가 우스시며 주께서 너희를 비우스시리로다

그 때에 분내사 너희 말숨호시며 진노호사 너희를 진동케호시고
곧으샤되 내가 내 남군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호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숨호사되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나함도다
내게 구호리니 내가 장조내게 헬방을 주어 유대를 삼개호며 짜뜻서지
초지호게 호리니

내가 헬장으로 너희를 셔느려질 그릇 못치 부스리라 호셨도다

그런즉 남군들아 이제는 치해 있게호며 세상 판원들아 교훈을 받을
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썰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을 임 맛초라 그러치아니면 여호와의 진노호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가 두려워호노니 그 진노호심이 급호심이로다

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아들 암살음을

피흘 써에 지운 시라

여호와여 내 원수가 심히 만하겠스며 니려나 나를 치려하는자도 만소
이다

여러사람이 내 영혼을 그르쳐 골으티 더가 구원호를 하는님세 엇지
못한다 호옵느이다 (셀나) (설나)

여호와여 나를 호위하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들께
호시는자나이다

내가 목 소리로 여호와께 불네 알외매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낙호
시도다 (셀나)

내가 누어잔 것과 또호 내가 선거순 여호와께서 나를 붓드심이로다
나를 둘너 치는자가 비록 천만인이라도 내가 두려워호지아니호리로다
여호와여 니려나옵쇼서 내 하느님이여 나를 구원호옵쇼서 대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짬을 치셨스며 악호자의 니를 부지르셨습느이다

여호와께서는 구원함이 있으니 주의 빛성의 배 주의 복을 주시옵쇼서

(셀나)

다윗의 시니 영상을 살펴
거문고에 맞출 노래라

내의의 하느님이여 내가 불너 알월 때에 내게 응낙하쇼서 도한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허셨스니 이제도 나를 드비히 낙이사 내 괴도함을
드르쇼서

인조들아 어느 때선지 내 영광을 변흐야 유퇘에 허겟느뇨 어느 때선지
헛된 거슬 도화흐며 거죽 거슬 구흐겟느뇨 (셀나)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꽈리를 위하사 경건흔자를 빼셨스니 내가
불너 알월 때에 여호와께서 드르시리로다
두려워흐야 꽈리를 범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엇슬 때에 심중에 말하고
좀좀흘지어다

의의 제스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흘지어다
여러 사귐이 말흐터 누가 선을 우리에게 보이리오 허오니 여호와여

쥬의 얼굴 빛출 들어우리에게 빛최쇼서 회의로 악로로 악우로 를
쥬색셔 내 모임에 두신 깃불이 데희 곡식파 포도쥬 풍족흘 때 깃불
보다 더흐도다
내가 안연히 눕고 자기도 허티니 대개 나를 흔튼히 거흐게 허시는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니이다

다윗의 시니 영장을 살펴
동조에 맞출 노래라

여호와여 내 말씀에 귀를 기우리시고 내 심수를 통축흐옵쇼서
내님군이시오 내 하느님이여 내 불너 알외는 소리를 드르시옵쇼서
대개 쥬색 괴도흐옵느이다
예호와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드르실터이으니 아침에 내가 쥬를 향흐야
괴도를 베풀고 브라보겟느이다
대개 쥬는 악흐 일을 깃버흐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 악이 쥬와 흠세
거흐지 못흐겟느이다
오만호자는 쥬의 눈 압해 서지못흐리니 쥬색셔 악을 힝흐는 모든쟈를

시오편

록

위위호시느이다

거죽 말호는자를 멀호시리니 피를 흘리고 속이는자를 여호와세서
극히 슬희여호시도다

오직 나는 만흔 인조호심을 낙음으로 주의 집에 드러갈 거시오 또
쥬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성殿을 향호야 경비호겟느이다
여호와여 내 원슈를 인호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당시며 주의 길을 내
압해 평탄케 호웁쇼서 대개 너희 입에 정직함이 업스며 너희 속이 악특하니 그 목구멍은
열닌 무덤 고고 그 혀는 아첨호느이다

하느님이여 너희를 영죄호옵시고 제 죄로 제가 너머지게 호웁쇼서
여희가 죄악이 만호니 내여 쫓츠쇼서 대개 주를 비역함이니이다
모릇 주를 의지하는자는 깃버홀 거시오 희락으로 영원히 소리를지를
거순 쥬세서 너희를 덥혀 보호호심이니 주의 일흔을 사랑하는자들도
쥬를 인호야 깃버셀 거시로다 대개 쥬세서 의인의게 복을 주시느니 여호와여 은혜로 에우시기를

방패로 보호함 그치 호시느이다

다윗의 맛출의 시니 령장을 설허 거문고에 노래니 여름재 음으로 흘 거시라

여호와여 분호심으로 나를 쑤짓지마옵시며 전노호심으로 나를 징계
호지마옵쇼서 여호와여 내가 물낫스니 나를 조비히 녁이쇼서 내뼈가 뗄니오니 여호
와여 나를 곳치쇼서 내령혼이 심히 뗄니오니 여호와여 어느 때서지오니잇가
여호와여 도라오샤 내령혼을 건지시고 주의 인조호심을 인호사 나를
구원호쇼서

죽은 가온되서는 쥬를 괴여함이 업스오니 디하에서 누가 쥬세샤례호
리잇가

내가 탄식함으로 꼰핍호야 밤마다 눈물노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썩이는도다

내가 근심함으로 눈이 어두어 모든 원슈를 인호야 쇠호여지는도다

약을 향호는 모든 자들아 나를 뼈나라 여호와께서 내 괴도를 밟으시
드르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구호함을 드르셨스니 여호와께서 내 괴도를 밟으시
리로다

내 모든 원슈가 불그려워하고 심히 두려워궁리니 홀연히 불그려워
물너가리로다

벤야민 조손 구시의 말을 입호야 디윗이
여호와를 더호야 부른 슬픈 노래라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죄세 의지호였으나니 나를 쫓는 모든 자의 께서
나를 구원궁야 견지쇼서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만일 내가 이 거슬 향호였던지 내 손에 허물이
있던지

나의 친호자와 악으로 갑핫게든

원슈가 내 령흔을 쫓차 잡고 내 성명을 땃에 뿜으며 내 영화를 희슬에
못개 흐옵쇼서 오직 연고 업시 원슈 될자를 내가 견정느이다 (셀나)
여호와여 진노호심으로 니러나 내 원슈의 분 냄을 막으쇼서 심판을
명호셨스오니 나를 위궁사 써쇼서
만민이 모혀 쥬를 들네 서리니 그 우에 놀흔 자리로 도라오시옵쇼서
여호와는 만민을 판단궁시느니 여호와여 내 공의와 내 속에 있는
성실함을 안찰호샤 나를 심판하쇼서

청전대 악호자의 악을 쌓코 의로운자를 세우시옵쇼서 대개 사롭의
모임과 콧을 감찰호시는자는 의로오신 하느님이로소이다

내 방패는 하느님께 잇스니 곳 모임이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호시도다
하느님이 의로오신 저판판이시며 날마다 진노호시는 하느님이시로다
만약 회기처 아니호면 그 칼을 갈으시리니 또 그 활은 당괴여 겨
누셨도다

더를 멀흘 괴계를 예비호셨스니 그 문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지어다 더는 악을 히산호느니 잔해함을 잉털호야 궤흘을 나핫도다

시 팔편

십

여는 구렁탕이를 파서 깁게 흐고 제가 문둔 함정에 스스로 빠졌도다
그 잔해들이 드괴의 머리로 도라오고 그 포학들이 드괴의 냉슈리에

느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쪘자 사례하고 지극히 놈호신 여호와의 일홈을
찬송호리로다

다윗의 시니 영장을 석혀
비파에 맛출 노래라

여호와 우리 쥬여 쥬의 일홈이 온 땅에 놈도소이다 쥬의 영광을
하늘에 베프셨도다

쥬셔 원슈를 인호야 어린 으희와 젓 먹는자의 입으로써 힘 잊게
찬송호기를 냉호셨으니 이는 터역과 원슈 같은 자로 흥여곰 즐거워

흐심이로다

내가 쥬의 손가락으로 문드신 하늘을 보고 쥬셔 베프신바 들과
별을 보니

사름이 무어시판대 쥬셔 데를 성각호시고 인조가 무어시판대 쥬셔

여호와 우리 쥬여 쥬의 일홈이 온 땅에 놈도소이다 쥬의 영광을
하늘에 베프셨도다

쥬셔 손으로 문드신 거슬 다 다스리께 흐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양파 소와 떡호 들 즘성과

공중에 새와 바다에 고기와 및 바다 속에 운동하는 빅물이로다
여호와 우리 쥬여 쥬의 일홈이 온 땅에 놈도소이다

다윗의 시니 영장을 석혀
롯합번 속묘에 맛출 노래라
쥬의 일홈을 찬송호겟느이다

내가 일심으로 여호와 쥬 샤례하고 쥬의 모든 괴이호 일을 전파호겟
느이다

내가 쥬를 인호야 깃버호며 즐거워호야 뛰며 지극히 놈호신자여 내가
쥬의 일홈을 찬송호겟느이다

내 원슈가 물너갈 때에 쥬 암흘 당호야 너머지고 멀망호리이다

죽 써 서 내 의와 내 송스를 봄 허셨고 위에 안 조샤 공의를 쓰라 심판
허셨느이다 죠 써서 이방을 쑤 저지시며 악인을 멸호시고 그 일홈을 영원토록 흐려
보리셨느이다

원수 가임의 멸호야 영원히 문히 젓스니 죠 써서 문히 터린 성읍에 괴악할
것도 업서 젓느이다

여호와 써서 영원히 안 주시고 심판호시라고 위를 베프셨도다

공의를 쓰라 련하를 심판호시고 정직호심으로 만민을 판단호시리로다
여호와 써서 억울함을 벙는자의 놀흔 성이 시오 환난 담홍 때에 놀흔

성이 시로다

쥬의 일홈을 아는자는 쥬를 의지할 거시니 대개 쥬 여호와는 찾는자를
별리지 아니 허셨느이다

시온에 거호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만민 중에 그 힝호신 거슬 전파할
지어다

살인호죄를 심문호시는이가 더희를 괴역호시는니 괴로움을 당한자의

불니 암암을 냇지 아니 허시리로다

十三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녀이시며 나를 뛰워놓는자의 게 내가 밟는 괴로움을
슬퍼서 옵쇼셔 쥬는 나를 스망의 문에서 니르 키시는자시로 소이다

十四

나로 흐여 곰 쥬의 찬송함을 전파호제 허시옵쇼셔 시온 너 괴의 성문에서
쥬의 구원호심으로 즐거워호겟느이다

十五

이방은 꼬리가 판 함정에 빠졌으며 그 빨이 꼬리가 숨긴 그물에
걸렸도다

十六

여호와 써서는 꼬리를 나타내사 심판을 행호셨스니 악인은 꼬리 손으로
헹흘 일노 꼬리 몸이 암히도다 (성각호전며 셀나)

十七

악인이 디하로 도라가리니 곳 하느님을 나쳐 보리는 모든 이방이로다
대개 간난 혼자들이 흥상 나쳐 보리심을 냉지 아니 허고 괴로움 당한자의

十八

소망이 영원로록 업서 지지 아니 허리로다 여호와여 너러나사 세상 사물이 이 괴지 못 허게 허시고 이방을 쥬 암해서

十九

심판 밭에 흥옵쇼셔 여호와여 더희로 흐여 곰 두려워호제 허시고 이방으로 흐여 꼬리가

二十

십

사름분인 줄을 알게 흥읍쇼서 (셀나)

여호와여 엇지호야 멀니 서시며 환난이 잊슬 땐에 엇지호야 숨으
시느잇가

약호자의 교만함을 인호야 궁핍호 사름이 필박을 당호매 너희가 그의
베픈 셰에 빼지는도다 악호자가 제 모임에 원호를 드랑호며 리를 탐농는자는 여호와를 떠나
엄수히 녀이도도다 악호자는 교만호 모양으로 말호기를 슬퍼지아니호시리라 호며 모든
성각에 하느님이 업다 호는도다

여가 힝호는 일이 흥상 궂세니 죠의 심판호심이 높하 보지못호며 여의
되 덕의개는 입으로 부는도다 그 모임에 널으티 내가 혼들니지아니호며 터티로 환난을 맛나지아니
흐리라 흐는도다 그 입에는 저주호파 잔사호파 포학호이 그득호며 혀 밋해는 잔해호파
잔악호이 잇도다

여가 촌은밀호 곳에 안져 그 숨은 터에서 무죄호자를 죽이며 그 눈은
꾼고호자를 엿보고 기드리는도다

술은 곳에 업티여 잇기를 스즈가 굴속에 있는 것 꼬호야 궁핍호자를
잡으려 업티여 잇스며 그물을 당기여 궁핍호자를 잡는도다

여가 굽흐려 업티여 잇스매 꾼고호자들이 그 강포호을 인호야

짜지는도다 여가 모임에 말호기를 하느님이 나져보리셨스며 그 낫출 그리우샤
영원히 보지아니호시리라 흐는도다

여호와여 나라나시며 하느님이여 손을 드샤 궁핍호자를 나져보리자마
옵쇼서

엇지호야 악인이 하느님을 업수히 녀이며 모임에 말호기를 쥬셔서
슬피지아니호시리라 흐느뇨

쥬셔서 감찰호셨습느이다 잔해호파 사오나움을 보시고 손으로
잡으려 호심이니 오직 꾼고호자가 쥬만 의지호오니 고독호 드식을
쥬셔서 도으시느이다

서십일편

십륙

十五 악인의 팔뚝을 찍그시고 죄인의 악을 헐문호샤 다 차자 뜬음이 업께

흐울쇼셔 영원로록 남군이 되시매 이방 사름이 모 쥬의 땋에셔

여호와께서 영원로록 남군이 되시매 이방 사름이 모 쥬의 땃에셔
멸호엿도다

여호와여 쥬께서 점손호샤의 원을 드르셨고 쥬께서 그 모임을 견교케
하시며 귀를 기우려 드르샤

고독흔 익식파 궁핍흔차를 위호야 심판호시고 세상 사름으로 흐여곰
다시 사오남지안개 호시리로다

다윗의 사내 령장을
식혀 훌 노래라

내가 여호와씨 의자호엿거늘 엇지호야 너희가 내 령흔드려 말호기를
새와 굽치네 산으로 도망호라 흥느뇨
불지어다 악인이 활을 당과여 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터셔 모임이
정직호 사람을 쏘려호는도다
터히 문허지면 의인이 무어슬 호리오

여호와께서 그 성면에 계시고 여호와의 위는 하늘에 엇스니 인조들을
그 눈이 보시며 그 암목이 슬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시험호시나 악인파 포학함을 빙화호는자를 모임에
위워놓시는도다
비 오드시 그물을 악인 우에 느리우시니 불파 류황파 쓰거온 바람이
더희 마실 잔이로다
대개 여호와께서 의로오시매 의 힝함을 짓버호시니 정직호자는 그의
낫출 보리로다

다윗의 사내 령장을
식혀 훌 노래나
여덟재 음으로 훌 거서라

여호와여 구원호옵쇼셔 경건호샤가 업서지고 인조 중에 충성된쟈가
설헷되는이다
더희가 각각 리웃을 향호야 혔된 거슬 말호며 아첨호는 임설파 두
모임으로 말호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호는 임설을 설헷시리니 곳 큰 거슬 익식파

세상 사름으로 흐여곰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호는 임설을 설헷시리니 곳 큰 거슬 익식파

시십삼편

십팔

혀로다

여희가 말호기를 우리가 혀로 이괴겟노라 우리 암설은 우리 거시니
누가 우리를 쥐판호리오 궁더이다.

여호와께서 골이사디 궁핍호자의 괴로움파 간난호자의 탄식을 인호야
내가 이제 너려나서 더 무리의 경호히 네이호는자를 든든호 곳에 두리라
호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슛전호 말씀이라 짜 풀무에 단련호 은곳호니 곳
널끔번 단련호 거시로다

여호와여 여희를 적히시고 이세티에서 영원호록 보호호시겟느이다
인조 중에 비루호이 놓하질 때에 악인이 두루 든니는도다

다윗의 식혜 헬 노래라

여호와여 나를 니저브리시기를 어느 때선지 낙르겟느잇가 영원호록
호시오리잇가 주께서 얼굴을 그리우시고 어느 때선지 나를 도라보지
아니호시겟느잇가

어느 때선지 내가 내 영호에 경영호고 종일토록 내 모임에 근심호겟
느잇가 어느 때선지 나의 원슈가스스로 놓하져서 나를 치겟느잇가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낙호시며 내 눈을 볶개 호샤
죽음의 잠을 자지말게 호옵시며
또 내 원슈가 날호기를 내가 더를 이괴엿다 흠을 면케 호시고 또 나를
괴롭네 호는쟈가 나의 유통호을 인호아 즐거워함을 면케 호시옵쇼서
나는 주의 인조호심을 의지호엿고 내 모임이 주의 구원호심을 즐거
워호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미호리니 이는 풍족호운혜로 나를 덕접호심이로다

다윗의 시니 령장을

식혜 헬 노래라

어리석은자는 모임에 하느님이 업다 하느니 더들이 괴악호야 뭐운
일을 힝호자라 선을 힝호는이가 하나도 업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조들을 굽어 슬피심은 그 중에 지각이 있서
하는님을 찾는이가 있는가 보심이로다

시십오편

이십

다 바른 길을 봉리고 흘려 더러운 터로 도라가며 선을 헹흐는 자가
업스니 곳 호나도 업도다 악을 헹흐는 자가 다 아는 거시 업느뇨 더가 내 빅성 먹기를 떡 먹듯
흐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 헹는도다 거고서 너희가 두렵고 두려워 헹니 대개 하느님이 의로운 세티에 계심
이로다

너희가 궁핍흔자의 경영을 봇그럽게 헹나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란홀 곳이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함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 사로 잡힌
빅성을 도라오게 헹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할 거시오 이스라엘이
깃버놓리로다

다윗의 사라

여호와여 누가 쥬의 장막에 류호며 누가 거룩한 산에 거공리잇가
이에 정직하게 헹흐며 공의를 일삼고 모임에 촘 말을 헹는자로다

그 혀로 참소호지 아니 헹며 그 벗의 게 악을 헹치 아니 헹며 그 리웃을
췌방치 아니 헹는자로다 그 눈에는 멋린자를 천히 녀이며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덕
하는자요 믿세훈 거슨 조괴의 게 해로울지라도 변처 아니 헹는자로다
제돈을 중흔변리로 삽이지 아니 헹며 뢰물을 밟고 무죄흔자를 해롭게
흐지 아니 헹는자니 무릇 이련 일 헹흐는자는 영원토록 움직임을
보지 아니 헹리로다

다윗의 기훈

하느님이여 나를 보전호읍쇼셔 내가 쥬세의지 헹느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외엣스티 쥬가 나의 쥬시니 나의 휴흔 거슨 쥬 밟께
업도다
싸에 잇는 셜인은 존귀흔자니 내 즐거움이 다 그의 게 잇도다
여호와를 비반하고 다른 신을 쫓는자는 괴로움이 만하지리니 너희께
붓는 피 제스를 내가 드리지 아니 헹고 그 일홈도 내가 입으로

시십륙편

이십이

부르지아니호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오 나의 잔이시니 내게 분깃호 거슬 쥬썩서

저히시느이다

줄노 척량호야

내게 주신 짜는 아름다온

곳에 잇스니 나의 유업이

실노 아름답도 소이다

내게 훈례호신

여호와를 찬송호리니 밤든 때에 내 모임이 나를

경계호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홍상 내 압해 뢰셋스매

내 우편에 계신고로 내가

움직이지 아니호리로다

이련고로 내 모임이 것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이 편안히

거호리로다

대개 쥬썩서 내 령흔을 디하에 브리지아니호시며 쥬의 거룩호자로

호여곰 썩어짐을 보지한케 호시리로다

쥬의 우편에서 즐거움이 영원히 잇스리로다

복

다윗의
거도락

여호와여 정직한 말을 드르시고 나의 불녀 알임을 굽어 드르시옵쇼서
제흘호지아닌 내 입에서 나오는 괴도에 귀를 기우리쇼서

나를 국문호는 판단이 쥬 압해 나게 호시고 쥬의 눈이 바른 거슬

보시옵쇼서

쥬썩서 내 모임을 시험호샤 밤 중에 나를 권고호시며 나를 단련호시되
홀을 찾지못호셨소오니 내가 내 암이 죄를 범차 안키로 작명호였느이다

사람의 힘위를 의론호건대 쥬의 암설의 말씀으로써 내가 강포호자의

길에 힝처아니호였느이다

내가 쥬의 길을 완전히 봄으매 내 발이 멋그려지지아니호였도 소이다
하느님이여 내가 쥬썩 부르지지니 쥬썩서 반드시 내게옹낙호시겠느이다
귀를 내게 기우려 내 말을 드르시옵쇼서

의지호는자를 구원호시는 쥬여 특별호 인조호심을 보이샤 니러나

치라호는자의개셔 올흔 손으로 구호시옵쇼서

시 십 칠 편

이십오

쥬 셔서 나를 보전호 시기를 눈 동즈 보전홍파 끽치 호옵시며 나를 죄의
 늘리 아래 덤허주샤 나를 해롭게 호는 악인의 채서 벼서나게
 원슈가 나를 에웠느이다
 대희가 기름짐으로 그 모임에 막히고 그 입으로 교만한 말을 호는 도다
 우리 거려 도날제 우리를 에웠고 그 눈을 부릅쓰고 우리를 싸에
 너머 뜨리고 져호는이다
 더는 먹을 거슬 씩조 랴호는 소조와 조호며 은밀호 터서 엿보는 어린
 소조와 조도다
 여호와여 나러나샤 대의 암해 서서 너머 뜨리시며 죄의 칼노 악인의 채서
 내령흔을 피호계 호시옵쇼셔
 여호와여 죄의 손으로 나를 세상 사람의 채서 벼서나게 호쇼서 대희들이
 금세에 대희 분깃흔을 밟으니 쥬 셔서 죄의 저물노 대희 비를 처우신지라
 대희 계조식이 고득호며 늄은 저물을 대희 어린 유희의 채 유전호는이다
 오직 나는 의로워 죄의 낫흘 보리니 내가 죄의 형상을 닙고 셀 때에는

내 모임에 족홍을 엊겟느이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니 령장을 석혀 호 노래라 여호와 채서 다윗을
 모든 원슈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천지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 채이 노래하는
 말을 알의여 흔으되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오니 내가 죄를 소랑호는이다
 여호와는 나의 바회시오 나의 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하느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의자 홀자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를 구원호시는 뿔이시오 나의 높흔 성이 서로다
 내가 여호와를 부르리니 그는 맛당히 찬송할자라 이럼으로 내가 내
 원슈의 채서 구원홍을 엊으리로다
 스망의 줄이 나를 얹으며 불의의 파도 가나를 무섭게 호 옛도다
 디하의 줄이 나를 두루고 스망의 덧치 내게 당호 옛도다
 내가 나의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나의 하느님 쪽 호소호 옛스니
 죄는 그 성던에서 내 소리를 드르시며 그 암해서 나의 호소호는 소리가
 그 귀에 들니 옛도다

시심팔편

이심류

그 땐에 땀이 진동할 때 혼들니고 산 멋치 혼들니고 전동함은 그
 진노 놓심을 인함이로다 죠의 코에 서 연괴가 나오며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살오며 그 불노
 숫치 피엿도다 여호와께서 뜨호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셨스니 그 발 아래 깅캄한
 구름이 앗섯도다 계름을 드시고 눈으셨스니 바람의 눌기로 촘샐니 눈으셨도다
 어두움으로써 그 은밀한 쳐소를 지으시니 곳 그의 계 들난 장막이라
 물의 어두움과 하늘의 짹짹한 구름이로다 그 암해 있는 광처를 인호야 짹짹한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불덩이로다 여호와께서 뜨호 하늘에서 우뢰호개 호시며 자극히 높호신이 가 소리를
 발호시매 우박과 불덩이로다 그 살을 발호샤 데희를 해치시고 만흔 번개로 데희를 패호개 호셨도다
 그 때에 물먼치 드러나 보이고 세상 터이 드러낫도다 여호와여 이는

죽의 수지름을 인함이오 그 코의 괴운아 부시는 거슬 인함이로소이다
 쥬셔서 우으로 브터 보내샤 나를 붓드셨고 만흔 물 가온더셔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의 강호 원슈와 나를 뛰워호는자의께서 나를 건지셨스니 이는
 데희가 나보다 더 강함이로다 내가 환난을 당호 날에 데희가 내게 니르렀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즐거히신고로 나를 건지셨도다
 내를 여호와께서 내 의를 콧차 내께 상을 주시고 내 손이 썩긋함을 콧차
 내께 갑호셨도다 대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직히고 뜨호 내가 악을 힝힝야 내 하느님을
 떠나지 아니호엿습느이다 그 규례가 다 내 암해있고 그 를 범을 내가 브리지 아니호엿도다
 내가 뜨호 그 암해셔 완전호야 내가 스스로 직혀 나의 악을
 힝치 아니호엿도다

그럼으로 여호와 죄서 나의 의를 쪘자 내게 갑호시고 그 눈 압해 내 손이 썩 긋음을 쪽자 내게 갑호셨도다
불상히 넉이 는자의 죄는 죄 죄서 불상히 넉임으로 보이시고 완전한자 의 죄는 완전함으로 보이시느이다

썩 긋 혼자의 죄는 썩 긋함으로 보이시고 거스리는자의 죄는 거스림으로 보이시느이다

대개 죄 죄서 곤고한 빅성은 구원호시되 오직 안목이 교만한자는 늦게 호시는이다
죽 죄 죄서 내 등불을 죄시니 여호와 내 하느님 죄 죄서 나의 어두운 거슬 끝에 호시느이다
내가 죄를 의지하야 역진으로 달려가고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야 성을 뛰여넘도다

하느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단련호 거시라 모든 의지 혼자의 죄 방패가 되시도다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뇨

三一

힘으로 내 허리에 썩를 썩우시고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느님이 시로다

내 발을 암 소슴의 발과 그치 흥사 나의 놀흔 곳에 나를 세우시도다
죽 죄 죄서 내 손을 그르쳐 싸호케 호시니 내 팔이 능히 구리 활을 당기는도다

도 흔 죠의 구원호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죠의 올흔 손이 나를 붓드시고 죠의 온유호심이 나를 크게 호셨느이다

죽 죄 죄서 내 거름을 너그럽게 호시니 내 발목이 및 그려지지 아니 흥였느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 멎쳐가서 너희를 멀호기전에 내가 도리 키져 아나 흐리로다

내가 너희를 쳐서 능히 나러나 지못하케 호리니 너희가 내 발 아래 업드러지리로다

대개 죄 죄서 싸 혹은 내 허리를 힘으로 썩 썩우시고 나러나 나를 치랴하는 자들을 죄 죄서 내 아래 굴복하케 호셨도다
도 흔 죄 죄서 내 원수를 내 압해 도라서서 도망케 호신 거둔 나를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서 십 팔 편

삼십

뭐 위호는 자를 나로 호여곰 멸호에 호셨느이다
여희가 웨쳐 불넷스나 구원호이가 업섰고 여호와를 불넷스나

되 담호지 아니호셨도다

그 때에 내가 여희를 쳐서 부서뜨리기를 바람의 놀리는 티끌 끄치

하고 내가 쓱아브리기를 길거리에 진흙 끄치 호였도다

쥬세서 빅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호여곰 이방의 웃음이

되게 호셨느니 내가 아지못하는 빅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여희가 내 소문을 드른 후브터 끗나를 숀종하고 이방사들을 내께

복종호리로다

이방 사람들이 장초 쇠호야 셜며 호위호 곳에셔 나오리로다

여호와세서 살아계신지라 나의 반석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호시는

하느님을 맛당아 높힐자이다

하느님은 끗나를 위호야 원슈를 갑호시고 나라들도 호여곰 내께

복종호리 호시는자로다

쥬세서 내 원슈의께 나를 피호리 호시며 나를 니르며 나를 치랴호는자

우에 두시고 강포호 사름의께서 나를 건지시는이다

여호와여 그런고로 내가 이방 가온티셔 감사호고 쥬의 일흔을 위호야
노래로 찬송호리이다

쥬세서 조괴가 세우신님군의께 큰 구원호심을 베프시며 기름부은자의께
인도호심을 보이시니 끗다윗과 그 조손의께 영원도록 호심이로다

다윗의 시니
식허호 노래라
령장을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지으신 거슬

나타내여 보이도다

이 날이 더 날의께 말씀을 전하고 이 밤이 더 밤의께 지식을 베프는도다
방언도 업고 말씀도 업스니 그 소리도 듯지못하는도다

그 소리가 온 짜에 통호고 그 말씀이 짜 췄서지니르렀느니 쥬세서
그 낮이에 히를 위호야 장막을 베프셨도다

희가 차일에서 나오는 신랑파 끗고 장수와 끗치 그 길을 샐니 듣니기를
즐거워호도다

우에 두시고 강포호 사름의께서 나를 건지시는이다

여호와여 그런고로 내가 이방 가온티셔 감사호고 쥬의 일흔을 위호야
노래로 찬송호리이다

쥬세서 조괴가 세우신님군의께 큰 구원호심을 베프시며 기름부은자의께
인도호심을 보이시니 끗다윗과 그 조손의께 영원도록 호심이로다

다윗의 시니
식허호 노래라
령장을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지으신 거슬

나타내여 보이도다

이 날이 더 날의께 말씀을 전하고 이 밤이 더 밤의께 지식을 베프는도다
방언도 업고 말씀도 업스니 그 소리도 듯지못하는도다

그 소리가 온 짜에 통호고 그 말씀이 짜 췄서지니르렀느니 쥬세서
그 낮이에 히를 위호야 장막을 베프셨도다

희가 차일에서 나오는 신랑파 끗고 장수와 끗치 그 길을 샐니 듣니기를
즐거워호도다

우에 두시고 강포호 사름의께서 나를 건지시는이다

여호와여 그런고로 내가 이방 가온티셔 감사호고 쥬의 일흔을 위호야
노래로 찬송호리이다

쥬세서 조괴가 세우신님군의께 큰 구원호심을 베프시며 기름부은자의께
인도호심을 보이시니 끗다윗과 그 조손의께 영원도록 호심이로다

시십구편

삼십삼

나오기를 하늘 뜻해셔 죽야 운행^하기를 하늘 뜻서 죽^시지 죽^시도 죽^매 그 더운

괴운을 날지아닌 거시 업도다 여호와의 를법은 온전^하야 령흔을 소성^하게 죽^며 여호와의 종거는

견실^하야 어리석은자로 죽여곰 지혜롭게 죽^시도다 여호와의 명령은 정직^하야 모임을 깃브^하게 죽^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야 눈을 봉^하게 죽^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썩^하야 영원^하시니 나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또 지극히 의로 오시도다

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오 만흔^하 정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며 또^하 쓸보다

더 둘며 쓸송이보다 더 둘도다

또^하 이 거스로 죄의 종이 경계^하물을 밟고 이 거슬^하 적힘으로 큰 상을

殃^으리로다 누가 허물된 거슬 씨드^하리오 죄여 나의 은밀^하 허물을 벗기시옵^하 쇠

또^하 종으로 희여곰 짐^하 벌^하는 죄를 짓지^하 죄^하가 나를

죽^하장^하지^하 안^하 캐 죽^시옵^하 쇠^하 그리^하 신^하 죄^하 내가 온전^하야 죄^하 죄^하 자음을

나오기를 하늘 뜻해셔 죽야 운행^하기를 하늘 뜻서 죽^시지 죽^시도 죽^매 그 더운

괴운을 날지아닌 거시 업도다 여호와의 를법은 온전^하야 령흔을 소성^하게 죽^며 여호와의 종거는

견실^하야 어리석은자로 죽여곰 지혜롭게 죽^시도다 여호와의 명령은 정직^하야 모임을 깃브^하게 죽^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야 눈을 봉^하게 죽^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썩^하야 영원^하시니 나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또 지극히 의로 오시도다

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오 만흔^하 정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며 또^하 쓸보다

더 둘며 쓸송이보다 더 둘도다

또^하 이 거스로 죄의 종이 경계^하물을 밟고 이 거슬^하 적힘으로 큰 상을

殃^으리로다 누가 허물된 거슬 씨드^하리오 죄여 나의 은밀^하 허물을 벗기시옵^하 쇠

또^하 종으로 희여곰 짐^하 벌^하는 죄를 짓지^하 죄^하가 나를

죽^하장^하지^하 안^하 캐 죽^시옵^하 쇠^하 그리^하 신^하 죄^하 내가 온전^하야 죄^하 죄^하 자음을

나오기를 하늘 뜻해셔 죽야 운행^하기를 하늘 뜻서 죽^시지 죽^시도 죽^매 그 더운

괴운을 날지아닌 거시 업도다 여호와의 를법은 온전^하야 령흔을 소성^하게 죽^며 여호와의 종거는

견실^하야 어리석은자로 죽여곰 지혜롭게 죽^시도다 여호와의 명령은 정직^하야 모임을 깃브^하게 죽^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야 눈을 봉^하게 죽^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썩^하야 영원^하시니 나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또 지극히 의로 오시도다

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오 만흔^하 정금보다 더 스모흘 거시며 또^하 쓸보다

더 둘며 쓸송이보다 더 둘도다

또^하 이 거스로 죄의 종이 경계^하물을 밟고 이 거슬^하 적힘으로 큰 상을

殃^으리로다 누가 허물된 거슬 씨드^하리오 죄여 나의 은밀^하 허물을 벗기시옵^하 쇠

또^하 종으로 희여곰 짐^하 벌^하는 죄를 짓지^하 죄^하가 나를

죽^하장^하지^하 안^하 캐 죽^시옵^하 쇠^하 그리^하 신^하 죄^하 내가 온전^하야 죄^하 죄^하 자음을

나오기를 하늘 뜻해셔 죽야 운행^하기를 하늘 뜻서 죽^시지 죽^시도 죽^매 그 더운

시 이십일편

삼십오

六

이제 내가 여호와 쟈서 그 기름 빛은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아노니
거룩한 하늘에서 데의께 응낙호샤 그 우편 손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응낙호시리로다

혹은 병거로 드랑하고 혹은 물노 드랑호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느님의 일홈으로 드랑호리로다

데희가 업드려지고 너머지되 우리는 니러나 끗게 서는도다

여호와여 구원호시옵쇼서 우리가 불너 알힐때에 님군 쟈서 응낙호시기를
원호옵느이다

다윗의 시니 영장을
석허호 노래라

여호와여 님군이 쥬의 힘으로 써 깃버하고 쥬의 구원호심으로 써 심히
즐거워호겟느이다

그 모음의 원홈을 주셨스니 그 입설노 구호는 바를 주지 아니호심이
업느이다 (셀나)

쥬세셔 선호 일의 복으로 데를 압서 영접호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三

七

혹은 병거로 드랑하고 혹은 물노 드랑호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느님의 일홈으로 드랑호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호시옵쇼서 우리가 불너 알힐때에 님군 쟈서 응낙호시기를
원호옵느이다

四

一

二

三

머리에 씌우시도다
여가 성명을 쥬세 구호매 쥬세셔 주셨스니 곧 영원서지 장슈호개
호심이니이다

여의 영광이 쥬의 구원호심으로 큰지라 쥬세셔 데의께 존귀와 위엄으로
씌우시는이다
대개 쥬세셔 데를 영원토록 지극히 복 빛은자 되게호샤 쥬의 압혜서
깃불으로 즐거워호게 호시는이다
님군이 여호와를 의지호매 지극히 높흐신이의 인조호심을 님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호리로다
너의 손이 모든 원수를 차지며 너의 올흔 손이 너를 뒤위호는자를
차자리로다

쥬세셔 노호실 때에 데희로 풀무에 있는 것 조치 호시며 여호와 쟈서
진노호샤 삼키시매 불이 데희를 살오리로다
네가 그 조손을 세상에서 멸호야 그 후예를 인류 중에서 죠호리로다
데희가 너를 해호랴호야 쟈를 베프다가 일우지못호였도다

十

九

八

七

六

五

四

시 이십이편

삼십륙

쥬 셰 셔 여희로 흥여곰도 라서서 도 망호 배 흥시고 여희 낫출 향호야
그 활 시위를 당피시리로다

여호와여 쥬의 능력으로 높히시옵쇼서 이 럼으로 우리가 쥬의 권세를
노래하고 또 찬양호리로 소이다

다윗의 죄미의 시니 폭포로 형상을 흘려라

내 하느님이여 내 하느님이여 엊지호야 나를 브리셨느잇가 엊지호야
멀니호샤 나를 둠지 아니시고 나의 우는 소리를 듯지 아니호시느잇가
나의 하느님이여 내가 나제 불너 알외되 터답지 아니호시고 밤에도
부르나 평안함을 엊지못호느이다

오직 쥬는 거룩호샤 이스라엘 찬송호는 중에 거호시는자시로다

우리 조상들이 쥬를 의지호였느오니 의지호였순즉 쥬 셜 셔 여희를

건져 주셨느이다

여희가 쥬 셔 불너 알외매 구원호을 엊엇고 여희가 쥬를 의지호매
붓그러움에 니르지 아니호였느이다

다만 나는 버래요 사룸이 아니라 사룸의 배 붓그러움이 되고 빅성의 배
업수히 녀임이 되엿도다

나를 보는자마다 나를 비우스며 입설을 비쥬거라고 머리를 흔들며
닐으터

여호와를 의탁호라 건지시리라 여호와가 데를 즐거워호시니 구원호
시리라 호도다

오직 쥬 셜 셔 나를 터로 브터 나오게 호신자요 어머니의 젓 먹을 때에
나로 흥여곰 쥬를 의자호케 호셨도다

내가 터로 브터 쥬 셜 셔 의탁호엿느오니 내 어머니 밤에 셔 브터 쥬가 내
하느님이 되셨도다

내께서 멀니호자마옵쇼서 환난이 갓갑고 또 도아줄이가 업습느이다
여러 황소들이 나를 두루고 바산의 건장한 황소들이 에워쌌도다
여희가 입을 버리고 나를 향호는 거시 씨지지려호야 부르지지는 스노와
굿도다

나는 쏗치는 물 끽흔자라 나의 모든 써가 어그러지고 내 모임이

황밀파 끄호야 비 속에서 녹는도다

내 힘이 를나서 와록파 끄고 내 혀가 니를에 붓헛스니 쥬셔서 나를

스디의 티끌에 두셨도다

대개 개들이 나를 에우며 악당이 나를 둘냈고 내 슈족을 뜯냈도다

내가 내 모든 써를 력력히 혜겟스니 더화들이 주목호야 나를 무례히

보는도다

더희 중에 내 것옷은 눈호고 속옷은 제비 쌈는도다

여호와여 멀니호지마옵쇼서 나의 힘이시여 셀니 나를 도아 주옵쇼서

내 령혼을 환도에서 건지시며 내비 홀노 잇는 성명을 개의캐셔

먼지시옵쇼서

스조의 입에서 나를 구원호시옵쇼서 쥬셔서 나를 들 소 썰에서

구원호시기를 응낙호셨느이다

내가 쥬의 일홈을 내 형데의게 전파호고 회중에서 쥬를 찬송호겟느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호는자들아 쥬를 찬송하며 야곱의 모든 조손들아

쥬세 영화를 돌녀보내며 너희 모든 이스라엘 조손들아 여호와를

스조의 입에서 나를 구원호시옵쇼서 쥬셔서 나를 들 소 썰에서

구원호시기를 응낙호셨느이다

내가 쥬의 일홈을 내 형데의게 전파호고 회중에서 쥬를 찬송호겟느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호는자들아 쥬를 찬송하며 야곱의 모든 조손들아

쥬세 영화를 돌녀보내며 너희 모든 이스라엘 조손들아 여호와를

경외흘지어다

二四

대개 여호와셔 곤고흔쟈의 곤고함을 업수히 보지아니호시고 슬혀
브리시지도 아니호시며 얼꼴을 더의게 그리우지아니호사 오직 웨쳐

부를 때에 드르셨도다

二五

대회중에서 나의 찬송홀이 쥬로 말미암아 낫스며 내가 쥬를
두려워호는자 압해서 나의 망세를 갑호리로다

二六

겸손훈자가 먹고 족홍을 엊으며 여호와를 찾는자가 여호와를 찬송호리니

너희 모임이 영원히 살가를 원호노라

二七

싹의 모든 췂치 여호와를 괴억호야 도라갈 거시오 만국의 족속들이

쥬 암해 경비호리로다

二八

대개 나라는 여호와의 거시오 여호와는 만국의 쥬저시로다

二九

싹의 살진자가 다 먹고 경비호며 티끌에 도라갈자도 다 그 암해
승비호리니 꽃 꽈괴가 능히 꽈괴 령혼을 살니지못할자도 그리호리로다

三十

그 조손들이 그를 섬기리니 후티서지 쥬의 일을 전호리로다

三一

더희가 와서 장초 날 빅성의게 그 공의를 알게 호야 쥬셔서 이 거슬

시 이십삼편

스십구

행복셨다 호리로다

다윗의 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업스리로다
나로 흐여곰 푸른 물방해 놓개 흐시며 잔잔한 물 가으로 나를
인도호시도다

나의 령흔을 회복호시고 조과 일흔을 위호샤 공의의 길노 인도호시도다
도훈 내가 비록 소망의 음침한 골짜이로 들킬지라도 해 밟음을
두려워호지아니함은 쥬셔서 나와 흠색 계심이라 쥬의 막닭이와 쥬의
집향이가 나를 암위호시는이다
쥬셔서 나를 위호샤 내원수 암해 상을 베프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는이다
진실노 선품파 일조호심이 나의 사는 날夙자 나를 죽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덴에 영원토록 거우리로다

다윗의 시라

싸와 그 풍성호 거시 여호와의 거시오 세상파 및 그 가온티 거호는자가
도훈 그려호도다
대개 바다 우에 싸 터를 잡으시고 콘 물 우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나갈자가 누구며 그 거룩호 곳에 설자가 뉘리오
손이 썩긋호고 모임이 정결호며 허란호 터에 쫓을 봇치자 아니호고
거죽명세를 흐지아니호는자로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엿고 저를 구원호시는 하느님이 의롭다
흐시리로다

이는 쥬를 차자 구호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느님의 낫출 구호는자로
소이다 (셀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호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드러가시리로다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건장호시고 용망예선

여호와시오

전장에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八

용명계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남군이
드러가시리로다 이영광의 남군이 뉘시뇨 만유의 여호와시니 이는 곳 영광의
남군이시로다 (셀나)

다윗의 시락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모임을 쥬세 밟치느이다
나의 하느님이여 쥬를 의지해였으니 나로 헌여곰 봇그립지 말게
혹시며 나의 원수로 헌여곰 나를 이괴여 조랑호지말게 헌웁시다
무릇 쥬를 봉라는자는 헌나도 봇그러움을 보지아니할 거시오 오직
연고 압시 비반하는자는 봇그러움을 납으리로다
여호와여 쥬의 힝중심을 내게 보이시고 쥬의 길을 그르치쇼서
쥬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르치쇼서 대개 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내가 종일 쥬를 봉라느이다

여호와여 베프신바 긍휼하심파 인조하심을 괴역호읍쇼서 대개 이
거슨 영원브터 흥상잇슴이로소이다
나의 짊엇을 때에 지은 죄와 거스림을 괴억지마옵시고 여호와여 쥬의
션호심을 인호야 인조하심을 베프시는대로 나를 괴억호읍쇼서
여호와께서는 션호시고 정직하시오니 그런고로 죄인의게 길을
그르치시리로다
온유흔자를 공의로 인도하시고 뜨호 온유흔자의게 쥬의 길을
그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다 인조하시고 진실하시니 곧 그 언약과 증거를
직히는자의게 그리하시도다

여호와여 일홈을 인농야 내죄를 샤호읍쇼서 죄가 크도소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자가 뉘뇨 여호와께서 이사람의게 턱하신 길을
그르치시리로다

이사람은 평안히 거하고 그 저손은 짜를 유업으로 엇으리로다
여호와의 오묘한 쓷이 두려워하는자의게 잇스니 언약하심을 더희게

알개 흥시리로다

내 눈이 흥상 여호와를 우러러보오니 내 발을 그물에서 벼셔나게
흥시리로다

내 도리 키샤 나를 불상히 넉이 쇼셔 나는 외롭고 괼고 흥웁느이다
내 모임에 근심이 만하겠스니 내 고난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쇼셔
나의 꼬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샤궁야 주시옵쇼셔
내 원수들을 보시옵쇼셔 너희가 만하 나를 뒤워 흥기를 심히
뭐워 흥느이다

내 령흔을 직하샤 나를 건자시고 나를 봇그럽지 말게 흥웁쇼셔 내가
곳 쥐세 의지 흥웁느이다

성실함과 정직함이 나를 보존하게 흥웁쇼셔 내가 쥬를 브라웁느이다
하느님이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흥웁쇼셔

다윗의 시라

-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쇼셔 내가 나의 정직함으로 흥하엿스며

밋그려지지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 흥엿느이다
여호와여 나를 시험ون샤 나를 슬피시고 나의 쫓과 나의 모임을
단련하시옵쇼서

대개 쥬의 인조 흥심이 내 눈 암혜 엿소오니 내가 쥬의 진리로
횡하엿느이다

나는 헛된 사름으로 더브려 안지아니하고 속이 눈자와 동횡하지아니
흐겟느이다

내가 악한 일 흥는 무리를 뭐워하고 괴악 혼자로 더브려 안지아니하
리이다

내가 손을 써서 무죄함을 보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럼으로 쥬의
제단에 두루 든니리니

이는 내가 쥬를 감사하는 소리를 높혀 쥬의 모든 괴이호 일을
전파함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쥬의 계신 덴파 쥬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스랑하느이다
내 령흔을 죄인과 고치 거두지마옵시며 내 성명을 피 흐르게 흥는

시 이십칠편

스십륙

사람과 끗치 거두지마옵쇼셔
그 손에 악특함이 잇고 그 올흔 손에 뢰물이 그득하도다
오직 나는 내 정직한 거스로 힝哄리니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궁휼히
녀이시옵쇼셔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서 회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哄리로다

다윗의 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치오 나의 구원함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께서 내 성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잇가
악흔자들은 곳나와 원수요 터역이니 내게 와서 내 살을 먹으랴 하다가
실속하야 업드려졌도다

큰 뼈가 나를 치라고 친을 칠지라도 내 모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란리가 나서 나를 치랴 홀지라도 내 모임이 놔흔 든든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혼 가지 일을 구호 거시 잇스니 이는 곳 내가 차자를
거신티 여호와의 덴에 내가 사는 날까지 거충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던에서 스모흘 거시로다
고난이 림흘 날에 나를 그 포막 속에 숨겨 호샤 그 장막 은밀한
터에 나를 금초시고 또 나를 들어 반석 우에 세우시리로다
이제는 내 머리가 나를 에운 원수 우에 들니리니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스를 드리겠고 또 내가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 소리로 불너 알외울 땐에 드르시고 나를 공홀히 보샤
내게 터답하시옵쇼셔

쥬씨서 내 낫출 차즈라 흉실 땐에 내 모임이 쥬씨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쥬의 낫출 차즈리이다 호옛스오니
쥬의 낫출 내게 모리우서지마옵시고 노호심으로 쥬의 종을 쓷차
보내지마시옵쇼셔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여 쥬는 나의 도으심이
되시니 나를 브리지도 마옵시고 뼈나지도 마옵쇼셔

대개 내 부모가 나를 브렛스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쥬의 길을 보이쇼셔 나의 원수를 인하야 나를 평탄한 길노
인도하시옵쇼셔

나를 터역의께 맛겨 임의대로 흐지말께 호시옵쇼서 대개 거죽

종거흐는자와 포학흐 말을 토흐는자들이 나를 치러 니러나옵느이다
내가 만약 성명 있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은혜 불거슬 빛지아니흐였더면

엇더케 되엿겟느뇨

여호와를 브랄지니 궂세히 서서 네 모임을 견고케 흘지어다 도흔

맛당히 여호와를 브랄지이다

다윗의 시라

여호와여 내가 쥬썩 불너 알외리니 나의 반석이여 내께 귀를
막지마시옵쇼서 쥬세셔 내께 숨숨흐시면 내가 웅덩이에 드러가는
사름파 굽치 될가 두려워하는이다

내가 쥬썩 부르지절 땃와 멋 내가 성소 안을 향흐야 손을 들 떼에
나를 악인파 잔해함을 흉흐는 무리와 굽치 쇠을지마옵쇼서 여희가
리웃으로 더브러 화평흔 말을 흐되 다만 여희 모임에는 악호 거시

잇도소이다

여희 흉호 것과 여희 흉위의 악호 거슬 그대로 갑하 주시고 여희
손으로 지은 거슬 쓰락 갑하 주샤 그 맛당히 엊을 보옹을 밟게
흐시옵쇼서

여호와의 흉호심파 그 손으로 지으신 거슬 여희가 쫓흐지아니흐니
그럼으로 여호와세셔 문허드리시고 세우지아니흐시리로다

여호와세셔 나의 괴도흘을 드르셨스니 찬송흐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모임이 쥬를 의지흐엿느니
내가 도음을 엊엇도다 그런고로 내 모임이 크게 깃버흐며 내 노래로
내가 쥬를 사례흐리로다

여호와는 그 빅성의 힘이시오 또 그 기름 빛은자의께 구원흐는
성이로소이다

쥬의 빅성을 월흐시고 쥬의 산업의께 복을 주시옵쇼서 여희를
먹이사 도흔 영원토록 밟드려 주시옵쇼서

여희 흉호 것과 여희 흉위의 악호 거슬 그대로 갑하 주시고 여희
손으로 지은 거슬 쓰락 갑하 주샤 그 맛당히 엉을 보옹을 밟게
흐시옵쇼서

여호와의 흉호심파 그 손으로 지으신 거슬 여희가 쫓흐지아니흐니
그럼으로 여호와세셔 문허드리시고 세우지아니흐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모임이 쥬를 의지흐엿느니
내가 도음을 엊엇도다 그런고로 내 모임이 크게 깃버흐며 내 노래로
내가 쥬를 사례흐리로다

여호와는 그 빅성의 힘이시오 또 그 기름 빛은자의께 구원흐는
성이로소이다

쥬의 빅성을 월흐시고 쥬의 산업의께 복을 주시옵쇼서 여희를
먹이사 도흔 영원토록 밟드려 주시옵쇼서

시 이십구편

오십

다윗의 시라

권능 잇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셔 돌니고 돌닐지어다
 그 일홈의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셔 돌니고 거룩함으로 화목호야
 여호와 셔 경비호지어다
 여호와의 소리는 물우에 잇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우뢰를 베프시니
 곳 큰 물 우에 비신 여호와 시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잇고 여호와의 소리가 살히 위엄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빅향 나무를 썩고 여호와 셔 셔 레바논의 빅향나무를
 씨 르는도다
 여호와 셔 셔 이 나무를 송으지 웃치 뛰네 호시고 레바논파 시리온
 산으로 흘여 품 들 송으지 웃치 뛰네 호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불 길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뷔n 들을 흔드시니 여호와 셔 셔 가데스의 뷔n 들을
 흔드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암 슨음을 락히호케
 벗겨브리시니 그 덴 가온티 잇는 여러 가지 물건이 말호티 영광이라
 흐더라
 여호와 셔 셔 홍슈 우에 계시고 여호와 셔 셔 영원서지 남군으로 안조시
 는도 다
 여호와 셔 셔 조괴 빅성의 채 힘을 주시고 여호와 셔 셔 조괴 빅성을
 태평홀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의 사나 타성연에
 훈노래라

여호와여 내가 쥬를 놓히 찬미호 커슨 쥬 셔 셔 두나를 놓히 드사고
 원슈가 나를 인호야 깃버호 지못호게 호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는 님이여 내가 쥬 셔 불너 알외매
 곳치 셔느이다
 여호와여 내 형흔을 음부에서 쇠을어 내 셔 셔 내 성명을
 보전호샤 웅덩이로 누려 가지안케 흐 셔느이다

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일在家을 샤례흘지이다
대개 그 노호심은 잠시요 그 은혜 중에는 성명이 있는지라 밤 동안에는
비록 울음이 잇스나 아침에는 즐거움이 오리로다

내가 나의 평안호 중에서 말호기를 내가 영원히 훈들니지 아니하리라
흐엿도다

여호와여 은혜로 내 산을 굽게 세우셨으나 오직 쥬의 낫출 그리우실
때에는 내가 락심흐엿느이다

여호와여 내가 불너 알외엿고 여호와를 향호야 고구호엿느이다

내가 웅덩이로 늘려갈 때에 나의 피로 무숨 유익함이 잇스리오 희물이
능히 쥬를 찬미하며 쥬의 진리를 전파하리잇가
여호와여 드르시고 나를 긍휼히 보쇼셔 여호와여 나를 도으시는이가
되시옵쇼셔

봉수 우주

쥬세서 나의 슬픔을 변호야 춤추며 흐셧고 나의 뵈옷을 벗기샤
깃불으로 나를 찍찍우셨느이다

봉수 우주

이는 나로 점점하치아니하고 영광을 가지고 쥬세 찬양하케 궁심이니

다윗의 시니령창을
실허호 노래라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내가 영원토록 쥬세 샤례흐겟느이다

다윗의 시니령창을
실허호 노래라

여호와여 내가 쥬세 의지하오니 영원히 나를 봇그럽게 흐지마옵시고

쥬의 의로오심으로 나를 건지시옵쇼셔

귀를 내께 기우리샤 셸니 나를 건지쇼셔 나를 위호야 견고호 반석이

되사 구원호야 보호하는 산성이 되시옵쇼셔

대개 쥬는 나의 반석이오 나의 산성이니 이련고로 쥬의 일在家을 인호야

나를 잇쓸고 인도하옵쇼셔

더희가 나를 잡으라고 비밀히 친 그들에서 나를 죽을여 내쇼서 대개

쥬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리의 하느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령훈을 쥬의 손에

부탁하느이다

내가 거죽의 혀호 거슬 맷는자를 뭐위하고 오직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도다

내가 주의 인조호심을 인호야 즐거워하며 깃버호오니 대개 죄색
 나의 곤난을 감찰호샤 내 모임의 근심함을 아셨느이다
 나로 호여곰 터역의 손에 들지 안케 호시며 나의 발을 너그려온 때에
 서께 호셨느이다
 내가 위급함을 당호였느오니 여호와여 나를 불상히 낙이 옵쇼서 내가
 근심함으로 면복이 모르고 심신이 도호 이 고습느이다
 내 성명은 근심을 말미암아 사라지고 내 나은 탄식을 말미암아 도호
 그러호외다 내 힘은 나의 불의 힘으로 피곤하고 나의 뼈는 쇠잔호느이다
 내가 모든 터역의 배 육을 당호고 리웃의 배 당함이 더욱 심호야 나를
 아는 자가 놀나고 끝에셔 보는 자가 다 나를 뼜나 도망호는도다
 사룸이 죽은 자를 괴념치 아니호는 것 그치 내가 니저브린바 되고
 죄여전 그릇 고도소이다
 내가 만흔 사룸의 훠방을 듯고 수방으로 두려운 일이 잇스니 여희가
 모혀 나를 쳐 성명을 죠호랴호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의지호야 말호기를 죄색서 내 하느님이라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〇
 二一
 二二
 二三

호였느이다
 나의 화복이 죄의 손에 잇느오니 내 원수의 손과 나를 펫박호는
 사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쇼셔
 죄의 얼꼴이 종의게 빛최오며 인조호심으로 나를 구원호시옵쇼셔
 여호와여 내가 죄색 불너 알외였느니 나를 봇그럽지 안케 호시고
 악인으로 호여곰 봇그럽게 호시며 디하에셔 즘증호게 호시옵쇼셔
 거죽 말호는 입이 벙어리 되게 호시옵쇼셔 데희가 교만호고 업수히
 녁임으로 완악호 말을 호야 의인을 차려호느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룸을 위호야 싸하둔 은혜가 엇지 쾤지 세상 사룸
 암해서 죄를 의지호는 자를 위호야 헹호신 거시로 소이다
 죄의 암 은밀호 곳에 데를 금초아 사룸의 계교를 버셔나게 호시며
 장막에서 보호호야 구설의 훠방을 면케 호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호지니 견고호 성주안에서 괴이호 인조호심을 내께
 보이셨도다

시 삼십이편

오십륙

희였소나 불니 알월aze에 쥬셔서 나의 은구호는 소리를 드르셨느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을 지니 여호와께서 성실한 사물을
보호하시고 교만을 헹한는자의게 중한게 갑하시도다
여호와를 우러러 봉라는 모든 너희들은 담대호야 모임을 드는동게 호라

다윗의 거시라 시니 교훈하는

그 혀물 사함을 엊으며 그 죄 덤허 주심을 엊운이는 복 있는자로다
여호와께서 죄를 주사지 아니호시고 그 모임에 간사함이 업는자는 복
잇는자로다

내가 죄를 조부지아니할aze에 내 쪽가 쇠호였소나 종일 부르지짐을
인함이로다

쥬셔 쥬야로 나를 중히 칙망하셨스니 나의 전의이 물나 너를에
감음과 끝치 되였느이다 (셀나)

내가 내 죄를 쥬셔 알와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동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조부호했다 희였스매 쥬셔서 내 죄악을 샤우셨느이다

(셀나)

이를 인호야 무릇 경건호이가 쥬를 맛날aze에 쥬셔 빌지어다 큰 물이
범람할 때에 과연 더의개 멋치지못호리로다

쥬는 나의 숨을 곳이시니 나를 괴로움에서 보전호시며 구원 엇는
노래로 나를 에우시겠느이다 (셀나)

내가 너를 끄르치며 네가 갈 길을 내가 지시호며 내 눈이 너를
도라보아 훈계호리로다

너희는 무자호 물파로새와 끝치 말나 자갈파 구래로 단속할지니
그러케 아니호면 너희께 갖가히 오지 아니호리로다

만흔 근심이 악호자의게 잇스되 오직 여호와를 멋는자의게는
인도호심으로 두루시도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깃버호고 즐거워호며 모임이 바론쟈들아 즐거움으로
부를지어다

의인들아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부를지어다 정직호자의게는 찬송호이
맛당호도다

시 삼십삼편

거문고로 여호와 셔 샤례히며 열줄 비파로 찬양할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잘 들지로다
 대개 여호와의 말씀이 바르시며 무릇 힝 hollow 시는
 주께서 공파의를 스랑 hollow 시니 여호와의 인조 hollow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금을 밟으며
 괴운으로 일우엇도다 그 바다 물 모호시기를 덤이 와 굽치 흐며 바
 운 땋이 여호와를 두려워 hollow며 세상에 거는
 주께서 곳 잇스라 흐신죽 잊고 서라 흐시
 여호와 셔서 이방의 의론을 폐 hollow 사고 뭇
 오직 여호와의 의론은 영원서자 서고
 나르리로다

여호와를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
 그러 hollow 도다 여호와 셔서 하늘도 브터 보시고 사

하느님이라

거하신 곳으로 브터 땃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보시도다 그 모임을 다 지으시고 그 힝 hollow는 거슬 다 감찰 hollow 시는도다
 말흔 무리로 구원을 엿은 왕이 업고 용밍 hollow자는 큰 힘으로 구원을
 엿지 못 hollow는도다
 몸이 구원 hollow는 헛저시니 그 큰 힘으로 능히 구원 hollow지 못 hollow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두려워 hollow는자를 도라보시고 그 인조 hollow심을 보라는자를
 도라보샤
 죽음에서 그 령흔을 건지시고 주릴 때에 그 성명을 보전 hollow 시도다
 우리 령흔이 여호와를 보라노니 주는 우리 도읍과 우리 방패시로다
 우리 모임이 주를 깃벼 hollow 거슨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 hollow 연고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조 hollow심이 우리께 렴 hollow 시기를 우리가 죄를 보라는대로
 흐웁쇼서

다윗이 아비멜렉 암해 hollow 및 친
 헝 hollow다가 죽여 가서 저은 서라

내가 때때로 여호와를 찬송 hollow 리니 그 찬송 hollow이 늘 내 입에 잇스리로다

시 삼십스편

내 모임이 여호와를 드망 흐리니 겸손 흐리가 듯고 깃버 흐리로다
나와 흠색 여호와를 크다 흐라 우리 가 흠색 그 얼 흠을 놓힐지이다
내가 여호와를 차즈 매 내게 응나 흐샤 나의 모든 무서온 중에서 나를
건지 셋도다

여희가 쥬를 우러러 보매 여희가 빛나며 그 얼굴이 영영 봇그럽지 아니
흐리로다
이 괴로온 자가 불너 알의매 여호와께서 드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호 셋도다
여호와의 스자가 쥬를 경외하는 자를 두루 직히여 여희를 건져 내시는 도다
여호와의 선호심을 맛보아 알나 쥬세 의지 흥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 성도들 아여호와를 두려워 흐라 대개 쥬를 두려워 흥는 자의 개는
부족 흠이 업도다
젊은 소자가 먹을 거시 업서 주릴 때가 잇스나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묘흔 거시 부족 흠이 업도다
쇼즈들 아 와서 내 말을 드르라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 흥는 도로 너희가

마르치 리로다
무론 누구던지 살기를 엉고 져 흥며 오래 살며 묘흔 거슬 업기를
즐거워 흥는 자여
네 혀에 악 흠을 금 흠며 네 입설에 거죽 말을 금 흠지이다
악을 떠나 선을 힝 흠며 힘써 화평 흠을 차자 족칠지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로온 자를 도라 보시고 그 귀는 기우려 불너 알 흠을
드르시는 도다
여호와의 낫치 노 흠 악 흠자를 향 흐샤 여희 일 흠을 땄에 서 제 흠시도다
의인 이 불니 알의매 여호와 셋서 드르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 셋도다
모임이 상 흠자를 여호와 셋서 갖갑게 흉시고 심증에 통회 흥는 자를
구원 흥 시리로다
의인의 당 흠은 고난이 만 흠나 오직 여호와 셋서 그 모든 가온 터셔
건지 셋도다
그 모든 써를 보전 흠서니 그 중에 흐나도 상 치 아니 흠도다
악 흠자 가 악에 죽느니 의인을 뭐 위 흠는 자가 죄를 밟으리로다

시 삼십오편

류십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쥬세의 지혜는 자는 헉나도
죄를 뜻지 아니 헉리로다

다윗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로 다투시며 나와 싸호는 자로 싸호시옵쇼서
방패와 간술을 잡으시고 니려서 샤 나를 도으쇼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며 내 영혼의 계 날으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헉쇼서
내 성명을 상코저호는 자로 붓그려움과 육을 보께 헉시며 나를
해코저호는 자로 물너가 슈치케 헉시옵쇼서
바람 암해 늘리는 거와 끽치 되여 여호와의 소자가 쫓차 보내게
흐쇼서
그 길을 어둡고 멋 그럽게 헉샤 여호와의 소자가 쫓게 헉쇼서
더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랴고 그만히 그물을 함정에 베풀고 무고히
내 영혼을 해코저호야 구덩이를 팟도다

八
때망이 즐연히 림흐게 헉샤 그만히 베푼 그물에 제가 걸니게 헉시며
그 페망에 떠러지게 헉시옵쇼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쥬의 구원호심으로 희락 헉리로다
내 모든 짜가 널으되 여호와여 누가 쥬와 끽흐리오 쥬는 궁곤흔
사람을 저보다 강호자의 셰셔 건지시니 곳 궁곤하고 잔난한 사람을
로 랙호는 자의 셰셔 건지시는 자라 헉리이다
불의 혼 중인이 니려나서 내가 아지도 못하는 일노 내게 헐문호도다
더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갑하 나의 영혼으로 괴롭게 헉는도다
오직 나는 더희가 병드렁슬 때에 내가 굽은 뵈 웃을 님고 금식함으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헉였스니 나의 괴도가 내 품으로 도라왔도다
더희가 헹흐기를 나의 벗파형의 채 흠파 끽치 헉고 내가 셱를 무릅쓰고
몸을 굽흐리기를 어머니 상수에 슬퍼흘파 끽치 헉였도다
오직 내가 어려움을 맛나매 더희가 깃버흐야 모햇스니 서로 아지못하는
파악호자들이 모혀 나를 치랴 헉야 나를 훼방흐기를 끽치지 아니 헉도다
완악하고 비웃는 자가 잔치에 안짐 끽흐야 내게 니를 갈도다

十六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17

쥬여 관망^{관망}호시기를 어는 떼서지 호시리잇가 쥬세셔 내령흔을 건지샤
더희가 패망^{패망}케 호라는 쇄에서 벗기시고 나의 성명을 스조의캐셔

18

구원^{구원}호시옵쇼서 내가 큰 회중에 쥬세 샤례호고 만흔 빅성 중에서 쥬를 찬송호리이다

19

서록^{서록}업시 나의 원슈된자로 호여곰나를 인호야 깃버호게 마옵시며

20

연고^{연고}업시 나를 위워호는자로 눈짓호지말에 호시옵쇼서 대개 더희가 화평호 말을 호지아니호고 간사훈 쇄를 베프러 싸에

21

안정호 사룸을 해코저호도다 더희가 나를 해호라고 그입을 크비 버리며 말호기를 더거슬 보라

22

더거슬 보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호도다 여호와여 임의 보셨스니 점점호지마시옵고

23

옵쇼서 나의 하느님 나의 쥬여 니려나사 나의 판단을 위호야 쇄시옵쇼서 곧

24

나를 위호야 호쇼서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쥬의 공의를 콧차 나를 판단호시고 더희로 나를

25

인호야 깃버호지말에 호시옵쇼서 그 모임에 날으기를 아하 우리 원을 일우엇도다 호지말에 호시고

26

말호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다 호지말에 호시옵쇼서 나의 해팀을 즐거워호는자로 일제히 불그립고 무안케 호시고 스스로

27

눕히고 나를 업수히 녁이논자로 불그려옴파 육을 당호제 호시옵쇼서 나의 올몸을 즐거워호는자로 락을 부르고 깃버호제 호쇼서 흥상 더희가 말호되 크시도다 여호와여 그 종의 평안함을 즐거워호신다 훌지어다

28

내 혀가 쥬의 의를 말호며 종일도록 쥬를 찬송호리이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서니
령장을 석혀 훌 노래라

29

악인의 범죄함을 내 심중에 성각호즉 그 눈 압해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업도다

대개 더는 조괴의 눈 압해서 조공호야 쫓호기를 그 죄가 드러나 뛰움을 보지아니호리라 호도다

그 입의 말은 오직 잔해와 제사니 지혜와 선을 헹^호기를 굽치도다
더는 누언을 때에 잔해^호기를 쐬^흐며 스스로 불선흠^길에 서고 악을
슬혀^흐지 아니^흐도다

여호와여 쥬의 인조^호심이 하늘에 잇스며 쥬의 충성된 멋씀이 구름^신지
밋^첫도다

쥬의 의가 하는님의 모든 산파^흐며 쥬의 판단^호심이 길^흔 바다
굿^흐시니 여호와여 사^름파 금^슈를 보전^흐시느이다

하는님이여 인조^호심이 심히 보비로 오시니 인성들이 쥬의 놀^기 그늘에
피^흐도다

쥬의 집안^종 풍후^험에 져질^진니 쥬^세셔 쥬의 복^락의 강물^물을 마시^개
흐시리이다

대개 성명의 근원이 쥬^세잇^스오니 쥬의 빛^혜서 우리 가^빛출 보^겟느이다
쥬는 쥬를 아는^자의^개 쥬의 인조^호심을^호 흥^상 두^시며 모^음이
정^직^한^자의^개 쥬의^의로^오심^을 흥^상 두^시을^쇼서^서

교^만호^자의^의 발^이 내^개 멋^치지^못 흥^개 흥^시며 악^인의^손이 나^를 쫓^지 말^게

호시 옵^쇼서^서 다윗의 시라

잔해^호을 짓는^자들이 데^괴서^서 너^머졌^느니 다시^나리^나지^못 흥^리로^다

악^을 짓는^자들을^인호^야 네^모임^을 불^평히^말며^불의^호을^짓는^자들을^루
괴^지 말^지 어^다

대^개 데^희는^풀파^고 치^속히^버 힘^을 불^거 시^오 푸^른 나^무와^고 치^쇠

잔^흐리^로다^라

여호와를^의지^흐야^션을^횡 흥^기며^띠에^거 흥^야 충^성을^죽 칠^지 어^다

너^는 여호와를^깃 버^흐라^네 모^음에^구 흥^는 거^슬 주^시리^로다^라

네^길을^여 호^와 쐬^의 흥^기며^또 의^지 흥^라 곤^일 우^어 주^시리^로다^라

또^너 희^의를^빗 파^고 치^드러^내 시^며 너^희 판^단을^낫 파^고 치^흐 흥^시리^로다^라

너^는 여호와 쐬^쉬며^층 고^기 드^리고^제 길^에 형^동^한 자^와 악^호 쐬^를

일^우는^자를^인호^야 네^모임^을 불^평히^말지^어다^라

노^흥을^굿 치^고 분^별을^떠나^며 모^음을^불 평^히 흥^지 말^나 죄^건에^만

짜저리라
악을 짓는자는 살허질 거시오 오직 여호와를 봄라는자는 싸를
쓰지흐리로다

이에 잠시를 지내면 악인이 업서자리니 네가 그 곳을 차자 보랴하나
업스리로다

오직 온유호이는 땃를 쓰지흐며 평강이 만홈으로 즐거워흐리로다

악호자가 의인 치기를 써하고 향호야 너를 말도다
쥬세셔 그 날이 너는 거슬 보시고 우스시리로다

악호자들이 환도를 빼고 활을 당기여 궁곤하고 잔난호자를 업으려드리고
횡위가 정직호자를 죽이고 져흐도다

제 환도가 제 모임을 찌르며 그 활은 부러자리로다
의인의게 잇는 적은 거시 모든 흐자의 풍성홍보다 낫도다

대개 악호자의 팔은 부러질터이나 오직의인은 여호와께서 봇드시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호자의 평정을 아시느니 그 유업은 영원서자 잇도다

환난 때에 너희가 봇그럽지아니하고 흥년 날에 풍족홍을 엊으리로다

오직 악호 사룸은 멀망하고 여호와의 원슈는 들에 무설허 풀파 끗치
쇼멸홀지니 곳연괴가 되여 쇼멸홀여자리로다

악호 사룸은 쑤고 갑자아니호나 오직의인은 공흘하 낙아고 서재흐도다
쥬세복을 뱔는자는 땃를 쓰지흐 거시오 쥬세 져주를 뱔는자는
살허자리로다

사룸의 거름이 여호와의 명호심이니 그 횡호는 길을 즐기시도다
여가비록 너머지나 랑패되지아니흐리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봇드심
이로다

내가 전에 젊다가 지금 늙었스나 의인을 브리신 것과 의인의 조손이
빌어 먹는 거슬 보지못하엿노라

종일로록 공흘히 낙이고 사룸의게 쑤이니 그 조손이 복을 뱔는도다
악을 브리고 선을 쪘치며 영원로록 살지이다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호샤 그 성도를 봉리지아니흐시니 너희는 영원히
보전궁심을 뱔으되 악인의 조손은 살허자리로다

의인이 싸를 쓰지흐야 거괴서 영원히 거농리로다

서 삼십 칠편

칠십

루

그 하나님의 를 범이 제 모임에 잇스니 그 거름이 실족 흠이 업도다

악인이 의인을 옛보고 죽일 괴화를 찾는도다

여호와 쐐셔 데의 손에 보려 두지 아니시고 판단하실 때에 명죄호지아

니호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봉라고 그 길을 직히라 너를 들어 땀을 츄지호게

호시리니 악인의 선허짐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악 혼자의 세력이 광대호야 본토에서 무성호 나무와 죽흔 거슬

보았도다

오직 사름이 지난 때에 더가 업서 젯스매 내가 차져도 맛나지 못호 옛도다

완전호자를 감찰하고 정직호자를 불지어다 대개 그 사람의 뒷치

평안호리로다

오직 패역호자는 다 흠세 멀망호리니 악인의 뒷촌 선허지리로다

오직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 쐐로 말미암음이니 환난을 당할 때에 더의

산성이 되시도다

여호와 쐐서 더희를 도으시고 피케 호시티 악인의 쐐서 피케 호샤

구원호심은 여호와를 의지호이로다

라위의 흠이라

서니 죄불케

三

여호와 여 주의 노호심으로 나를 쑤짓지마옵시며 주의 전노호심으로

나를 척호지마시옵쇼셔

대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중히 누르도다

내 육신의 성호이 업슴은 주의 노호심을 인호이오 내 짜가 평안호이

업슴은 내 죄를 인호이로다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 갖고 내게 너무 무겁도다

내 양처가 내 암새 나고 썩어짐은 나의 미련호을 인호이로다

내가 굽히고 심히 굽으러지며 종일로록 슬픔으로 눈도다

내 허리에 열괴가 그득히며 내 육신에 성호이 업도다

내가 피끈하고 심히 상호 옛스니 모임에 편치못함으로 부르지지도다

죽여내 소원이 다 죄 압해잇스니 모임에 편치못함으로 부르지지도다

一

四

五

六

七

八

九

시 삼십팔편

칠십이

내 냄통이 벌떡벌떡 희며 내 힘이 쇠죽니 내 눈의 빛도 나를 뜨낫도다
 나의 벗과 친호이가 나의 상음을 보고 나를 뼙나 셧고 나의 천체들도
 멀니 셧도다
 내 성명을 샹코져 희는자가 덧출 베풀고 나를 해희 랴는자가 잔악한
 말을 내며 종일도록 제례를 도모하도다
 그러나 나는 귀먹은자 그치 뜻지아니하고 병어리와 그치 입을
 열지아니하고도다
 나는 듯지못하는 사롭파 그흐니 내 입에는 척망함이 업도다
 여호와여 쥬를 봉라오니 쥬 내 하느님이여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호되 너희가 나를 인호야 깃버호야 내가 실속할 때에 너희가
 스스로 큰데호고 나를 철가념려호노라 호옛느이다
 내가 너머지게 되였소우니 나의 근심이 흥상 내 암해 있도다
 내 불의 흠을 고호고 내 죄를 인호야 근심흐겟느이다
 내 원슈가 살고 강성하고 무고히 나를 뭐위호는자가 만토다
 악으로 선을 갑는자가 나의 원슈 팀은 내가 선을 촛침을 인함이로다

여호와여 나를 뼙나지마 읍시고 내 하느님이여 나를 멀니호시지마 읍순서
 쥬여 나의 구원이시니 속히 오사나를 도이 죠서
 내가 말호티 나의 헝실을 삼가호야 혀로 범죄함을 면호고 악인이 내
 암해 잇슬 때에 내 입에 자갈먹이겠노라 호옛도다
 내가 점점호야 입을 봉하고 선호 말도 말치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운절호도다
 내 모임이 속에서 쓰겁고 무상흘스록 불붓듯호옛스니 드티여 내 혀로
 말호엿도다
 예호와여 나의 쫓과 내 날의 슈가 엊더호 거슬 알게 호시고 내가
 엊더케 약호 거슬 알게 호쇼서
 쥬세서 나의 날이 손바닥 넓이만치 되게 호셨스니 나의 년슈가 쥬
 압해서는 업는 것 그도다 사롭마다 몸은 비록 강건호나 촘으로 한
 숨뿐이로다 (셀나) 죽이코 들판조우 뜻도 백화장의 촘이로 한

시 삼십구편

칠십오

사람마다 린왕홍은 촘으로 그림자와 끼고 헌화홍은 촘으로 한술분이니

저물을 싸호나 누가 엊을년지 아지못하는도다

쥬여 이제 내가 무어슬 브라우리잇가 내 소망이 쥬세 잇느이다

나의 모든 범죄 중에서 나를 견지샤 어리석은 사람의게 육을 보지말게

호시옵쇼서 이는 쥬세 흉농신 거시니 내가 점점호야 입을 열지아니호잇느이다

쥬의 척망호심이 내게 떠나게 호시옵쇼서 쥬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호느이다

쥬세서 죄를 인호샤 수지지심으로 사람을 견침호실 때에 그 번화홍을

버레와 뜻치 쇼멸호시니 사람마다 촘으로 한술분이로소이다 (셀나)

여호와여 나의 고도를 드르시고 내가 불녀 알외는 소리에 귀를

기우리시고 내가 눈물 흘닐 땐에 점점호지마시옵쇼서 내가 쥬세

나그내와 우거호자가 되잇느니 나의 모든 조상과 끼소이다

나를 용서호샤 회복케 호시기를 내가 떠나 업서지기 전에 호시옵쇼서

四
三
二
一

주 309 죄를 인호샤 수지지심으로 사람을 견침호실 때에 그 번화홍을
버레와 뜻치 쇼멸호시니 사람마다 촘으로 한술분이로소이다 (셀나)
여호와여 나의 고도를 드르시고 내가 불녀 알외는 소리에 귀를

기우리시고 내가 눈물 흘닐 땐에 점점호지마시옵쇼서 내가 쥬세

나그내와 우거호자가 되잇느니 나의 모든 조상과 끼소이다

나를 용서호샤 회복케 호시기를 내가 떠나 업서지기 전에 호시옵쇼서

덕위의 시니 협장을
선택 흘 노래라

내가 여호와를 고절히 빛았더니 쥬세 굽흐려 나의 불녀 알함을

드르셨도다

나를 패망의 웅덩이와 진흙에서 건져내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거름을 견고케 흉셨도다

새노래를 내 일에 두셨스며 곳 우리 하느님을 찬송할 거시니 만흔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호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호는자는 복 잇는 사람이니 교만호자와 거짓말호는자를

도라보지아니호는자로다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쥬세 우리를 향호샤 흉호신바 고이호 일과

성각호신 거시 심히 만호매 내가 베풀어 말호랴면 그 수를 혜지못호리니

누가 쥬와 비교호리오

제스와 레물을 쥬세 즐기시지아니호심으로 나의 귀를 열어 주셨스니

서 스 십 편

칠십육

내가 곳 말 흥 봉지 어다 내가 왔느이다 나를 의로 흥 선 거슬 성경에
괴록 흥 셨도다 내가 하느님이여 내가 죄의 쓷 흥 기를 즐기며 죄의 를 범이 내 모임에
내 하느님이여 내가 죄의 쓷 흥 기를 즐기며 죄의 를 범이 내 모임에
잇느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공의를 전파 흥 옛스매 봄지이다 내가 입설을 봄 흥 지
아니 흥 리니 여호와여 아시느이다

죽의 공의를 내가 심 중에 숨기지 아니 흥 옛스매 죄의 출생 되심과 죄의
구월 흥 심을 내가 전 흥 옛스니 죄의 인조 흥 심과 죄의 전실 흥 심을 내가
대회 중에 숨기지 아니 흥 옛느이다 여호와여 죄세 죄의 궁활 흥 심을 내게 긋치지 마옵시고 죄의 인조 흥 심과
죽의 전실 흥 심으로 흥 상 나를 보호 흥 올 죄세 무수 흥 저앙이 나를 들넷스며 나의 죄가 내게 멋첫스매 내가 능히
머리를 들수 업스니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만키로 내가 락심 흥 옛느이다
여호와여 구호 노니 나를 건지 죄세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아 주시 올 죄세

내 령흔을 차자 멀 흥 라는 자들 노 봇 그립고 흐 죄 무 안 흥 게 흥 시며
나의 해 됨을 즐거워하는 자로 물네가 육을 밟게 흥 시 올 죄세
나를 향 흥 야 말 흥 기를 더 거슬 보라 더 거슬 보라 흥 니 이 사름으로
붓그러움을 인 흥 야 망 흥 게 흥 시 올 죄세
무릇 죄를 구하는 자는 죄를 인 흥 야 희락 흥 며 것 버 흥 고 또 흐 죄의
구원을 스랑 흥 는 자는 흥 상 널 기를 크시도다 여호와여 흐 지어다
나는 궁관 흥 고 간난 흥 자나 죄는 나를 괴념 흥 시도다
죽는 나의 도으심이오 나를 건지 시는 자니 내 하느님이여 더덕 더덕
마음 죄세

다윗의 서니 행장을
식허 흘 노래라

빈약 흥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고난 맛날 때에 여호와 죄세
건지 시리로다 여호와 죄세 보호 흥 시고 그 성명을 직히 시리니 따에서 복을 밟으리로다
죽여 원수의 죄 붓쳐 그 죽대로 흥 지 말게 흥 올 죄세

그가 쇠약호야 상에 누으매 여호와께서 봇드시고 병들 배에 죄여서
니불을 끗쳐 펴시겠느이다 내가 말호였스티 여호와여 나를 공홀히 녀이시고 나의 령호을
곳치시옵쇼서 내가 죄를 쥬여 범호였다 호였느이다 나의 원슈가 나를 훠방호되 데가 어느 떼에 죽고 그 일홈이 망홀하고
흐느이다

원슈가 와서 나를 보면 끗 헛말을 지으니 그 중심에 잔해함을 싸어서
밧제 나가면 말호도다 나를 혼호는 모든자가 나를 치랴호야 쑥은 쑥은호고 서로 쬐호야 나를
해코져호도다 나를 의론호야 글으티 악호 병이 그 몸에 봇햇스니 이제 누어서 다시
나려나지못호다 궁도다 나의 멋는 화천호 천구곳 나의 썩을 먹던자가 발굼치를 들어 나를
차는도다 여호와여 나를 궁홀히 녀아시고 나로 나려나게 호샤 갑제 호시옵쇼서

이럼으로 내가 쥐여서 나를 깃벼호시는줄을 아는 거슨 나의 원슈로
나를 이괴지못호게 호심이로소이다
내게 내르러는 쥐여서 나를 나의 정직호 중에 봇드샤 영원히 나를
쥬의 암해 세우시는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양호기를 영원브터 영원서지 멋칠
거시로다 아멘 아멘

聖

예이권

교리의 조손의 시니교 훈호는 거시오
령장을 석혀 흘 노래라

하느님이여 내 모임이 쥐를 차지라고 갈급함이 소음이 시니 물을
차지라고 갈급함과 끗도다
내 모임이 하느님 스모호기를 목 모름 끗치 호니 곳 살아계신
하는님이시라 내가 어느 떼에 하느님 암해 내르러 뵈오릿가
쥬야에 내가 눈물노 음식을 삼았스니 사룸이 종일 나드려 말호기를

너의 하느님이 어티 잇느냐 흐도다
 거룩 혼 날을 적히는 무리와 내가 흠색 헹흐고 하느님의 면에 흠색 갈
 뼈에 깃쁘고 찬송하는 소리를 흠엿스니 이 일을 괴억흐고 락심흐느이다
 내령혼아 네가 엊지흐야 락심흐며 엊지흐야 내 속에서 불안흐뇨 너는
 하느님을 브라라 대개 내가 그 암해 구원음을 엉음으로 찬양흐리로다
 내 하느님이여 내가 속에 락심흐엿스니 그런고로 요단 싸와 허문과
 미사산에서 쥬를 성각흐는이다

쥬의 폭포 소리를 바다가 바다를 서로 부르고 쥬의 물결과 쥬의
 파도가 다 내게 넘쳤느이다

낫에는 여호와께서 인조흐심을 베프시고 밤에는 나로 노래흐께
 흘실지니 곳 내 성명의 하느님께서 흠는 과도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 날으기를 엊지흐야 나를 니지시는잇가 내가
 엊지흐야 원수의 암제를 인흐야 슬퍼흐는잇가 흥리로다
 내원수가 나를 육흐매 칼이 내 쪽에 드러움파 끄흐니 떠가 종일
 나를 향흐야 말흐기를 네 하느님이 어티 잇느냐 흐도다

내령혼아 네가 엊지흐야 락심흐며 엊지흐야 내 속에서 불안흐뇨
 너는 하느님을 브라라 대개 내가 찬양흐리니 나의 낫희 구원이시오
 내 하느님이시로다

하느님이여 나를 판단흐샤 내 송수에 어질지 아니한 나라로 나를
 위흐야 다행시고 나를 잔사하고 불의흔 사름의 쇄셔 피케 흥읍쇼서
 대개 쥬는 나의 하느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엊지흐야 나를 브리시며
 내가 엊지흐야 원수의 암제를 인흐야 슬퍼케 든니느잇가

쥬의 빛파 진리를 베프샤 나를 인도흐시며 나를 잇쓰려 쥬의 거룩한
 산에 나르고 쥬의 거룩한 곳에 드러가게 흥시옵쇼서

그런즉 내가 하느님의 제단에 오르며 나의 극락이신 하느님께서 나아
 가리니 하느님이여 나의 하느님이여 내가 거문고로 쥬를 찬양흐리
 로다

내령혼아 네가 엊지흐야 락심흐며 엊지흐야 내 속에서 불안흐뇨
 너는 하느님을 브라라 대개 내가 찬양흐리니 나의 낫희 구원이시오
 내 하느님이시로다

교라의 조손의 시니 교훈홍 눈 거시오
령장을 식혀 홀 노래라

하느님이여 우리 렬조가 우리의 배 젠호거슬 우리 가귀로 드렸소오니
곳 쥬씨셔 데희 날에 힝흐신 넷 일이로 소이다

쥬씨셔 조괴 손으로 이방을 쫓즈시고 우리 렬조를 심으셨스니 쥬씨셔
렬방은 괴롭게 흐시고 렬조는 번성케 흉셨도다

대개 데희가 조괴 환도로 쌔를 엇음도 아니오 조괴 팔노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쥬의 올흔 손파 팔파 얼꼴의 빗치니 쥬씨셔 헌교 흐심이
로다

하느님이여 나의 왕이시니 야곱으로 흥여곰 구원을 엇게 흐시옵쇼셔
우리가 쥬를 힘남어 우리의 원슈를 누르고 우리가 쥬의 일홀을
힘남어 우리를 치랴 흐는자를 봄으리이다

대개 내가 활을 의지 흐지아니 흘거시오 내 환도가 가히 나를 구하지
못 흐리로다

오직 쥬는 우리를 우리 원슈의 채서 구원 흐셨스니 우리를 흔흐는자로

슈치를 밟게 흐셨느이다

내가 종일도록 하느님을 조랑 흐오니 영원히 쥬의 일홀을 샤례 흐리
로다 (셀나)

쥬씨셔 우리를 보리샤 우리로 욕을 밟게 흐시고 우리 군스와 흠씨
나가지 아니 흐시느이다

쥬씨셔 우리로 원슈의 채 쳤거 물나가게 흐시니 우리를 흔흐는자가
조괴를 위호야로 약 흐엿도다

쥬씨셔 우리로 잡아 먹을 양과 고개 흐시고 이방 가온디 흉흐셨도다
쥬씨셔 쥬의 빅성을 팔아 리를 엇지 못 흐엿스니 데희 갑스로 쥬의
제물이 더 흐지 못 흐엿느이다

쥬씨셔 우리로 리웃의 채 욕을 보게 흐시니 우리를 둘니 잇는자의
업수히 넉암과 희통함이 되게 흐시도다

쥬씨셔 우리로 흥여곰 이방 중에 우승거리가 되게 흐시고 만민이
우리게 머리를 흔들게 흐시도다

나의 룽욕이 종일내 암해 잇스니 슈치가 내 얼꼴을 덤ترت도다

시 스십스편

팔십오

나를 석진고 채방호는 소리를 인동고 터역파 원수를 언함이로다
이 일이 다 우리의게 림호엿스나 우리가 죠를 낫지 아니호엿고 노호
주의 연약을 빙반치아니호엿느이다

우리 모음이 퇴축호지아니호고 우리 거름도 죠의 길을 뼈나기아니호
엿느이다

비록 그러나 쥬셔서 우리를 산 즘성의 굴에 써여져 상케 호시고
우리를 스망의 그늘노 덤흐셧도다

우리가 만일 우리 하느님의 일홈을 니져브렛스며 혹 손을 펴 다른
신을 향호엿더면

히느님셔서 엿지호야 이를 궁구치아니호셧스리오 대개 모음의 은밀한
거슬 아시도다

우리가 쥬를 인호야 종일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잠혀 죽을 양파 꽃처
해아림을 밟았도다

죽여 쬐시옵쇼서 쥬셔서 엿지 줌으시느잇가 니러나샤 우리를 영원히
부리지마시옵쇼서

쥬셔서 엿지호야 낫출 그리우시는잇가 우리의 고난파 암제를 니즈시
느잇가

우리 령흔이 티끌에 굽흐리고 우리 몸이 흙에 붓혔도다

니러나샤 우리를 도으쇼서 쥬의 인호심을 인호야 구속호시옵쇼서

교라의 조손의 사니 교훈홍눈 거시오 익가니
령장을 살펴 빙합화 꼭표로 홀노래라

내 모임이 선호 거슬 속구쳐 올니며 내가 왕을 위호야 지은 거슬
말호니 내 혀가 필적의 불과 끄도다

왕은 인성보나 아름다오며 은혜가 입설에 더호니 그립으로 하느님
세서 복을 주셨스니 영원서지 멋치리로다

능력이 있는자여 환도를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베풀지어다

진리와 겸손과 공의를 위호야 듣고 나아가 위엄으로 이고쇼서 왕의
울흔 손이 왕을 인도호야 두려온 일을 힝흐리로다

왕의 살이 리호야 왕의 원수의 모음을 맛치니 만민이 왕 압해 업드려
지도다

시 스십 오편

팔십 육

六

하느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세지 잇스니 주의 나라 홀은 정직한 홀이
니이다

하느님이여 주의 보좌가 세세에 잇도다 나라 권명은 정직한 권명이라
의를 스랑하고 불법을 뛰워 헛셨스니 그런고로 하느님 곳 너의 하느
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네게 부어 네 동모보다 승호개 헛셨도다

왕의 모든 웃에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이 잇스니 샹아 궁에서 거문
교가 왕으로 헌여 곰 즐겁게 헛엿도다

왕의 시녀 중에 멜국 공주가 잇고 황후가 왕의 올흔 편에 되서 서서

오비르의 금으로 삼엇도다

뜰이여 듯고 보며 귀를 기우리라 네 빅센파 네 아비의 집은 나져 떨

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스모 헛시리니 더는 너의 주시라 너는
절할지어다

두로의 뜰이 레물을 가지고 오며 백성 가온티 부흔자가 너의 은혜를
구호리로다

六八

왕의 뜰이 안에 잇서 영화가 운전하니 그 웃이 금으로 쥬를 노학도다
잘 지은 보불 웃을 납고 왕의 개 나아와 보일 거시오 쪽는 처녀들을
잇쓰려 왕의 개 보이리로다

더가 깃불과 락으로 인도함을 남어 왕의 던에 나아가리로다

不尽이 잇서 왕의 렐조를 나으리니 왕이 세워 원띠에 군이 되게
하시리로다

내가 왕의 일홈을 만세에 고억하께 헛리니 그럼으로 만민이 왕을
영원세지 사례하리로다

교라의 조손의 시니 형장을
식혀 너 청으로 헌 노래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란 곳과 힘이시니 어려울 때에 큰 도움이사로다
그럼으로 빠는 비록 세자며 산은 비록 바다 가온티로 옮겨 빠질지
라도 우리는 두려울 거시 업고
비록 그 물결이 흥涌하고 유통하고 요동치며 또 그 물이 넘침으로 산이 움직
일지라도 두려울 거시 업도다 (셀나)

호 하슈가 잇서 눈호여 흐르는 거시 하느님의 성으로 즐겁게 헌니 이
성은 곳 저극히 높흐신 자의 장막의 성소로다.
하느님께서 그 가온티 계시매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니 하느님께서
일은 아침에 도으시리로다.
이 방들이 흥옹^{흥옹} 매 나라들이 전통^{전통}하고 죄^죄 씨 씨 소리를 내시매 짜이
쇼멸^{쇼멸} 흥도다.

만유주 여호와 씨 씨 우리와 흠써^{흥써} 흥시니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의 높을
성이시로다 (셀나)

와서 여호와의 흥^흥하신 거슬 보라 짜에 엉더흔 저양을 누리셨느니라
짜 뭇^썩 씨자 싸^싸 흠을 쉬^쉬 씨 흥시니 활을 썩 그시며 창을 썩으시고 수레를
불노 살오^{살오} 시도다. 너는 그만히 잇서서 내가 하느님 됨을 알나 내가 이방 중에서 높히
기림을 밟고 짜에 서 높히 기림을 보리로다.

만유주 여호와 씨 씨 우리와 흠써 계시니 야곱의 하느님은 나의 높은
성이시로다

고락의 조손의 시나 령장율
식혜^{식혜} 홀 노래라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부르는 소리로 하느님을 브를
지어다.
대개 지극히 높^높하신 여호와는 두려운 자시니 원짜를 다스리시는 크신
님군이시로다.
만민을 우리 아래 복종케 흐시고 만국으로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흐시도다.

우리를 위^위호사 수업을 털^털 흐시니 곳^곳 랑^랑 흥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나)
하느님이 큰 소리로 올나가시니 여호와 씨 씨 라발 소리로 가시도다.
찬양^{찬양} 흥세 하느님을 찬양^{찬양} 흥세 찬양^{찬양} 흥세 우리 왕 씨 찬양^{찬양} 흥세
대개 원짜에 왕은 하느님이시니 지혜로써 찬양^{찬양} 흥지이다.
하느님은 렬족을 다스리시니 하느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안^안즈셨도다
만민의 군들이 모히매 곳^곳 아브라함의 하느님의 빅성이라 대개 짜의
방패가 하느님 씨 속^속 엿스니 하느님이 높히 들니셨도다



노래니
조손의 시라의

크시도다 여호와여 우리 하느님의 성 곳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
흐리로다
시온산 북방은 크신 왕의 성이니 높고 아름다와 원짜의 즐거운
거시로다
하는님께서 그 궁에 거하시니 사람들이 높은 성으로 아는도다
볼지어다 왕들이 모쳤다가 또 흠세 물너 것도다
더들이 보고 괴이하 넉이며 또 두려워도 망하고 옛도다
셀니고 두려움이 멋첫스니 히산^{하늘}는 너인의 고동함^{고도다}
쥬세서 동풍을 니르 키샤 다시스의 비를 셰르리시도다
우리가 드론대로 지금 만유주^{여호와의} 성 곳 우리 하느님의 성에서
보았스니 하느님께서 영원서자 견고케^하시리로다 (셀나)
하느님이여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의 인조^하심을 성각^하였느이다
하느님이여 주의 찬송이 주의 일홍파^로치 따뜻^서지 멋첫스니 주의

올흔 손에 의가 그득^하도다

주^하의 판단^하심을 인^하야 시온산은 깃버^하고 유다의 뜰은 즐거워^하지
어다
시온을 두루고 두루^하든니며 그 성루를 헬지니라
그 성을 성각^하며 그 궁을 보라 너희가 후덕에 전^하울지어다
이 하느님은 영원도록 우리 하느님이시니 죽을 때^서 저우리를 인도^하
시리로다

고라의 조손의 시니 령장을
식혀 흘 노래라

만민들아 다 이 거슬 드르라 세상에 거하는 백성들아 다 귀를
기우릴지어다

귀천 빙부 무론^하고 다 그리^하울지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슨^하로운 말이오 내 모임에 묵상^하는 거슨
지식이로다
내가 귀를 기우려 비유를 듯고 내가 거문고로 나의 숨은 말을

구십일

四 三 二 一



풀나로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해호 랴 호는자의 악함이 나를 두루 내가 무어슬 두려워호리오

그 저물을 의지호야 그 부함의 만함을 조랑호는자로다

그러나 더희 중에 그 형예를 능히 구속호는자가 업고 도호 능히

위호야 속전을 하느님세 밧칠쟈가 업도다 대개 그 성명을 구속호는 갑시 너머 귀호니 영원로록 훌수 업느니라

능히 기리 살게 호야 썩여 짐을 보지안케 호지못호리로다

더가보는 거슨 무릇 슬괴잇는자가 죽으며 우준호자와 즘성의 모음을

가진쟈가 망호고 그 저물을 타인의께 세치리로다

더가 심중에 그 집이 영원히 잇고 그 거흔곳은 터터로 잇스리라 호야 그 덤답을 조괴 일홈으로 날호도다

다만 사름이 비록 존귀호티 거호나 오래지아니호니 멀망호 즘성파고도다

(셀나)

이 거사 우민호자의 힝호들이나 그러나 후인은 그 말을 즐거워호도다

(셀나)

여희는 양의 무리와 고치 디하로 모라가니 스망이 더희 목쟈로다

아침에 정직호자가 더희를 다스릴지니 거호 곳을 뼈나 디하에 가셔

거괴서 형용이 업서지리로다

오직 하느님이 나의 령흔을 디하의 권세에서 구속호사 나를 영접호시

리로다 (셀나)

사름이 부흥을 일우고 그 집의 영화가 더호나 너는 두려워말지이다

더가 죽으매 가히 가지고 갈 거시 업스니 그 영화로움이 쓰라 느려가

지못호리로다

여가 성서에 스스로 복이 잇다 호고 조괴를 위호야 잘 험으로 사름이

칭찬호나

여가 그 혈조의 곳으로 도라갈지니 영원토록 빛출 보지못호리로다

사름이 비록 존귀호티 거호나 써드름이 업스면 멀망호 즘성파 고도다

아삽의

전능호신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씀호사 련하에 조칙호셨스니 히 듯는

티로 브터 지는 곳서지 멋졌도다
하느님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출 발호셨도다

우의 하느님이 림호샤 명녕히
잇서 살오고 그 속방에 두루 광풍이 심호도다

웃하늘에 조직호시고 싸에 조직호샤 그 벽성을 심판호시리로다

닐으샤티 나의 성도를 내 암해 모호라 곳제스로 나와 언약호자로다
대개 하늘이 그 공의를 보이리니 하느님은 친히 심판호실자사로다

(셀나)

내 빅성아 드를지어다 내가 말호 거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
흐리니 나는 하느님이오 곳 너의 하느님이로다

내가 너의 제스를 인호야 척망치아니호리니 너의 번제가 홍상 내
암해 잇도다

내가 네 집에서 슈소를 취치아니호고 슈염소를 네 우리에서 취치
아니호리로다
무릇 수풀 가온티 즘성이 다 나의 거시오 일천 산의 희성들 선자로다

내가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들에 리왕호는 즘성이 다 내 거시로다
내가 만일 주릴지라도 네게 고호지아니호리니 세계와 그 중에 충만호
거시 다 내 거시로다

내가 슈소의 고기를 먹겟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겟느냐
감샤호는 제스를 하느님께 드리고 너희 밍세를 극히 높호신이의께
갑흘지어다

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흐리로다

그러나 악호자의께는 하느님이 닐으샤티 네가 엊지호야 나의 률례를
전호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뛰워호며 또 내 말을 네 뒤에 더져 브렷도다
네가 도적을 본즉 더브러 합호고 또 간음호자와 혼가자로 무리가
되는도다

내가 네 입을 놋쳐 악호 말을 내며 네 혀로 궤사호를 짓는도다
내가 안져서 네 형례를 훼방호며 네 어미의 조식을 찌르는도다

내가 네 입을 놋쳐 악호 말을 내며 네 혀로 궤사호를 짓는도다
내가 안져서 네 형례를 훼방호며 네 어미의 조식을 찌르는도다

시 오십일편

구십륙

네가 이 거슬 힝호되 내가 점점호매 네가 나를 너와 그을줄노
아나 그러나 내가 너를 쑤지질 거시오 네 죄를 네 눈 암해 버려
비들니로다

하느님을 니져 브리는 너희가 이 거슬 성각호라 내가 너희를 씩자매
건질자가 업슬가 냄려흘지어다

감사하는 제스를 드리는자가 나를 영화롭게 흐고 힝위를 올케 흐랴
흐는자의에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다윗의 사니 령장을 석혀 홀 노래라 다윗이 밧세바로 더브리

동침호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무지전 후에 지은 거시라
하느님이여 인조승심을 쪘치샤 나를 궁휼히 녀이시며 궁휼이 만호심을
좇치샤 나의 모든 범죄함을 업시호여 주옵쇼서

나의 악함을 물아개 씻기시며 나의 죄를 씻긋케 흐여주옵쇼서

대개 내가 나의 범죄함을 아오니 내 죄가 흥상 내 암해 잇는이다

오직 쥬씨만 내가 범죄호였고 쥬의 암해셔 악흔일을 흥호였스니 쥬씨
말숨호실 때에 의로오시다 흐고 국문호실 때에 선호시다 흐리이다

불지어다 내가 날때에 죄악이 잇고 내 어머니가 나를 잉히호였슬
때에 내내 죄가 잇섰도다

쥬씨서 중심에 진실함을 원호시니 나로 호여끔 나의 은밀호 중심에
지혜를 알게 흐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썩긋개 흐쇼서 곳내가 정호 거시오 나를 씻기쇼서
곳내가 눈보다 희넷는이다

나로 즐거움파 깃분 소리를 듯케 흐샤 썩그신呻가 즐겁게 흐시옵쇼서
낫출 그리워 내 죄를 보자마르시며 내 모든 악을 업시호여 주옵쇼서
하느님이여 나를 위호샤 혼정호 모임을 지으시며 내 속에 정직호
심령을 새롭게 흐시옵쇼서

나를 쥬 암해셔 쫓차 내지마옵시며 쥬의 성신을 내께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쇼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내 다시 주시며 나를 붓드샤 숲종호 심령을 주시
그러하면 내가 범범호자와의 길을 그르치리니 죄인이 쥬씨로 도라
옵쇼서

가리이다

하는님이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여 피흘닌 나를 죄에서 건지

쇼셔니 혀로 쥬의 공의를 높히 노래호리이다

쥬여 내 입설을 열어주시옵쇼셔 또 화내입이 쥬를 찬송호야 반포호

벳느이다

대개 쥬는 제스를 즐기지 아니호시니 즐기셨으면 내가 드렸스리이다

쥬는 번제를 깃버아니호시느이다 하느님의 제스는 상호심령이니 하느님이여 상호고 동회호는 모임을

경홀히 녀이지아니호시벳느이다

쥬의 처분을 쌔라 시온에서 선을 흥호시며 또 예루살렘의 성을

싸흐쇼셔

이에 쥬께서 의로운 제스 곳 번제와 온전히 불살오는 제스를 즐기시리니 그 때에 사름이 슈소를 쥬의 단에 드리벳느이다

하윗의 교회호노 시오 행장을 석회 홀 노래니 예동 사름 도예이 사울

의계 와서 다윗이 아히멜네의 집에 니르렀다 홀째에 지은 거사라

률

十九

十七

十八

十九

능력 있는 사름아 네가 엊지호야 스스로 잔해함으로 조랑호느냐 하느

님의 인조호심이 흥상잇스리로다

二 네 혀가 심호 악을 쌔하고 련마호 비슈 갓 야 간사함을 흥궁_호는도다

네가 악을 선보다 더 손랑호고 거죽 말을 의의 말궁_호는 것보다 더 손랑호도다 (셀나)

三 간사호 혀여 잡아 먹는 모든 말을 손랑호도다

四 이와 갓치 하느님이 너를 영원히 망케 호시고 또 너를 잡으샤 네 양막 뱛개 몰아 내며 또 네 뿍리를 살아 있는자와 땅에서 쌉으사리로다 (셀나)

五 의인이 보고 두려워호며 뜨더를 우스며

六 굴으되 볼지어다 이 사름이 하느님으로 그성을 삼지아니호고 갓괴의 풍성호 저물을 의지호며 갓괴의 힘을 다호야 악독함을 더호는도다 오직 나는 하느님의 집에 잇는 푸른 말람 나무와 갓호니 내가 영원

七 토록 하느님의 인조호심을 의지호느이다

八 쥬께서 흥호심을 인호야 내가 영원 시자 쥬께서 샤례호리니 쥬의 성도들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시 오십 삼편

빅

암해 주의 일홈을 브랄 거는 일홈이 선홈이로 소이다

다윗의 교훈 훈강 눈 시니 행장을 식혀
홀노래요 슬픈 곡도에 맛출 거시라

어리석은자는 심중에 하느님이 업다 호니 더들이 괴악호자요 뭐운
악을 힝호 매 호사름도 선을 힝호는자가 업도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인성들을 굽어 슬피심은 그 중에 지각이 잇서
하느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보심이로다

모도 빙역하고 흠색 더러온자가 되니 선을 힝호는자가 업고 호나도
업도다

잔해홈을 힝호는자가 아는 거시 업느뇨 대희가 내 빅성 먹기를 떡
먹듯 흐며 하느님을 부르지 아니호도다

하느님이 너를 에운자의 히꼴을 흗허 브리심으로 대희가 두려움이 업는
곳에서도 심히 두려워호자라 하느님이 대희를 내여 브리셨습니 네가
대희로 붓그럽게 흠엿도다

원호노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지어다 하느님께서 그

사로잡힌 빅성을 도라오게 흠실 떼에 야곱이 즐거워호 거시오
이스라엘이 깃버호리로다

다윗의 교훈 훈강 눈 시오 행장을 석혀 거문고에 맛출 노래니

설사 름들이 사울의 계와서 말호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스스로 숨지 아니호엿느잇가 홀제에 지운 거시라

하느님이여 주의 일홈으로 나를 구원호쇼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호
시옵쇼서 하느님이여 나의 괴도를 드르시며 귀를 기우려 내 업의 말을 드르시옵
쇼서

대여 외인이 니리나 나를 치며 강포호자가 나의 성명을 찾는이다
더희는 하느님을 제 암해 두지아니호엿도다 (셀나)

볼지어다 나를 도으시는자는 곳 하느님이시니 죠색서 내 성명을 보호
하는자와 흠색호시도다
나를 터역호는자의개 악으로 갑하주실자라 원컨대 주는 그 성실호심
으로 멸호시옵쇼서

내가 감심 제로 쥬씨 제수^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쥬의 일홈을 사례^례할
거손 쥬의 일홈이 션홈이로 소이다 주^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느니 나의 모든 원슈의 배^갑는 거슬
쥬^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느니 나의 모든 원슈의 배^갑는 거슬
내가 눈으로 보았도다

다윗의 괴^괴 훈^훈 흔^흔 시니 령^령 장^장을
식^식 허^허 거^거 끝^끝 고^고 흘^흘 노^노 래^래라

하느님이여 귀를 기우려 내 괴도를 드르시며 숨지 말고 내^은 구호를
암찰^암 읍^읍 쇼^쇼 내 말을 굽어 드르시고 내^에 응^응 낙^낙 쇼^쇼 내가 원망^망 힘으로 편치 못^못 히^히
며 탄식^탄 흐^흐느^느이다

이는 원슈의 소리와 악^악 흠^흔 자의 암제를 인^인 힘^힘이니^니 데^데 희^희 가^가 잔^잔 해^해 힘^힘으로 써^써
내^에 더^더 흐^흐고 분^분 흠^흔 으로 써^써 나^를 패^패 박^박 흐^흐도^도

내^으 음^음 속^속에^에 심^심 흠^흔 야^야 죽^죽 음^음의 위험^{위험} 힘^{힘이} 내^에 멋^멋 첫^첫 도^도

두^두 려^려 움^움 과^과 셀^셀 남^남이^이 내^에 릴^릴 흐^흐 엿^엇고^고 황^황 공^공 힘^{힘이} 나^를 덤^덤 헛^헛 도^도

내^가 널^넓으^으 터^터 누^누 가^가 내^에 비^비 둑^둘 이^이 와^와 콧^콧 치^치 놀^놀 기^기 를^를 주^주 리^리 오^오 놀^놀 나^가 쇠^쇠

편안^안 힘^힘 을^을 엇^엇 으리^리로^로 다^다

불^불 지^지 어^어 다^다 내^가 멀^멀 나^나 놀^놀 나^나 가^가 쇠^쇠 흥^흥 상^상 광^광 야^야에^에 거^거 흐^흐 고^고 저^저 흐^흐 도^도다^다 (셀^셀 나^나)

피^피 흘^흘 곳^곳에^에 속^속 히^히 가^가 쇠^쇠 사^사 오^오 나^나 온^온 바^바 람^람 과^과 광^광 풍^풍 을^을 피^피 흐^흐 고^고 저^저 흐^흐느^느이다

쥬^쥬 여^여 패^패 케^케 날^날 시^시 고^고 데^데 희^희 혀^혀 를^를 갈^갈 니^니 쇠^쇠 흉^흉 쇼^쇼 쇠^쇠 내가^가 성^성 에^에 서^서 강^강 포^포 힘^{힘이} 과^과
다^다 토^토 는^는 거^거 슬^슬 보^보 앗^앗느^느이다

데^데 희^희 가^가 쥬^쥬 야^야로^로 그^그 성^성 우^우에^에 두^두 르^르 흉^흉 흉^흉 니^니 쟁^쟁 중^중에^에 절^절 해^해 힘^{힘이} 과^과 우^우 환^환 이^이
잇^잇 도^도 다^다

악^악 독^독 흠^흠 이^이 그^그 가^온 터^터 잇^잇 고^고 포^포 학^학 과^과 궤^궤 사^사 가^가 그^거 리^리에^에 떠^나 지^지 아니^아 흐^흐 도^도 다^다

나^나 를^를 칙^칙 망^망 흐^흐 는^는 자^자 가^가 원^원 슈^슈 가^가 아니^아니^니 원^원 슈^슈 일^일 진^진 대^대 내^가 쓰^쓰 앗^앗 슬^슬 거^거 시^시 오^오

놉^놉 흔^흔 흐^흐 고^고 나^나 를^를 칙^칙 망^망 흐^흐 는^는 자^자 가^가 아니^아니^니 흐^흐 는^는 자^자 일^일 진^진 대^대

내^가 숨^숨 고^고 피^피 흐^흐 엣^엣 스^스 리^리로^로 다^다

이^이 는^는 나^나 와^와 동^동 등^등 사^사 름^{ーム} 이^이 오^오 내^내 동^동 모^모 요^요 나^나 의^의 친^친 흠^흡 벗^벗 된^된 너^너 로^로 다^다

그^그 러^러 나^나 악^악 흠^흠 이^이 그^그 집^집에^에 잇^잇 고^고 그^그 심^심 중^중에^에 잇^잇 스^스 니^니 원^원 전^전 대^대 망^망 흠^흠 이^이 흘^흘 연^연 히^히

서 오십오편

백성

여회가 림호야 살아서 디하에 뼈려질자이다

오직 나는 하느님께 불너 알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호시리로다

저녁파 아침파 낮에 내가 부르지지고 슬피한식호리니 쥬께셔 나의

소리를 드르시리로다

나를 덕역호는자가 만hood으로 나의 성명을 구속호시고 나를 치는 싸움에

버셔나 평강함을 엿게 호셨도다

하느님이 드르시고 또 여회를 괴롭게 호시리니 하느님은 네로 브터

거호신자시로다 (셀나) 이 무리는 여상호야 번호이 업고 하느님을 두려

워호자아니호는자로다

두여가 손을 들어 서로 화목호던자를 치고 언약을 비반호였도다

그 입은 멋그럽기가 소젓 기름 고호나 모임에는 정투를 품었고 그

말이 부드럽기가 기름보다 더호나 늙니는 환도로다

네 메인 짐을 여호와세 붓치라 너를 붓드실 거시니 의로운자로

요동호을 영원히 용납지아니호시리로다

하느님이여 여회를 패괴호는 웅덩이에 빠뜨리시리니 피를 흘니께 호는

간사호자가 살 날의 반을 살지못할 거시오 오직 나는 쥬를 의지호리이다

령장을 석혀 호 노래요 꼭묘는 원방 충에 소리 업는 베톤이라는

꼭묘니 다윗의 귀호시요 블네셋인이 간드에 쟁을 때에 훈거사라

하느님이여 나를 긍휼히 네이 쇼셔 대개 사름이 나를 삼키려호야 종일

치며 압제호는이다 나의 원수가 죽일나를 삼키려호야 교만호게 나를 치는자 만도다

내가 두려워호는 날에 쥬를 의지호리로다

내가 하느님께 그 말숨을 찬송하고 내가 하느님을 의지호니 두려온

거시 업도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어슬 호리오

여회가 종일 내 말을 어그러지게 풀고 성각호는 것도 다 나를 해호려

호도다

여회가 모하고 스스로 숨어서 내 성명을 해코져호야 내 자회를
엿보도다

여회가 잔해호일노엇지 하느님을 피호리오 하느님이여 전노호샤 만민을

업호러리음쇼서
나의 류리홀을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쇼서 이 거슬
쥬의 척에 과록호신 거지 아니니잇가
내가 불네 알월 떠에 내 원슈가 물네 가리니 내가 이 거슬 알거니와
하는 남세서 나를 도라보시도다
내가 하는 남세 그 말음을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세 그 말음을 찬송하
리로다
내가 하는 남을 의지호오니 내가 두려울 거시 업도다 사름이 내게
무어슬 호리오
하는 님이여 주께 당세호 거시 잇소오니 내가 감사하는 제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성명을 소망에셔 건지시고 나로 실족치안케 호사 성명 빛
가온되서 하는 남 암해 힝호케 호지 아니호셨느잇가

다윗의 시호 령장을 식혀 원풀폐망 꼭표에 맛출 노래라

나를 공흘히 녀이 쇼서 하는 남이여 나를 공흘히 녀이시음쇼서 내 협흔이
쥬세로 피호야 이 저양이 지나갈 때서지 주의 놀개 그늘 아래서
피호벳느이다

내가 지극히 높호신 하는 남세 불네 알의리니 나를 위호야 모든 일을
일우시는 전능호신자시로다

쥬세서 하늘노브터 보내사 나를 살키고 저호는자의 휘방에셔 구원호시
리로다 (셀나) 하는 남의 인조호심과 그 진리를 베포시리로다

내 협흔이 스노 가온되 잇서서 불에 듣는자 중에 누엇스니 그 니는
창파 살이며 그 혀는 리로온 환도 콧흔 인성이로다
하는 남이여 높고 높호심이 하늘보다 지나며 주의 영광의 높고 높호
심이 원싸보다 지날지어다

더희가 내 발에 그물을 예비호엿스니 나의 성명이 셜호께 되고 더희가
내 압해 할정을 팟더니 조괴가 그 가온되 빠졌도다 (셀나)
내가 모임을 뎅호엿느이다 하는 남이여 내가 모임을 뎅호엿느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호리이다

내영화여 써고 비파와 거문고여 셀지어다 나도 새벽에 써리로다
 쥬여 내가 만민 중에서 쥬를 샤례하고 만국 중에서 쥬를 찬양하리
 이다 대개 주의 인조호심은 커서 하늘에 멋쳤고 쥬의 전리는 구름에 멋쳤
 는이다

하느님이 여 놓흐심이 하늘보다 지나시오 쇼셔
 지나시옵쇼셔

다윗의 시요 령장을 식혀 원불폐망
 꼭묘에 맛출 노래요 귀훈 시라

인성들사의를 말종들이 인디 점점하느뇨 차판할 때에 너희가 파연 경직케
 흐느뇨
 너희 중심에 악을 헹흐고 싸에서 너희 손의 포학함을 져울질흐야
 주도다
 악인은 어미 터에서 브터 비반흐고 비에서 브터 도를 떠나 거죽 말을
 흐도다

여희 독함이 비암의 독파 끼고 여희가 귀를 막고 귀먹은 혜호는 독샤와
 끼흐야

상군의 소리를 듯지 아니하랴하니 공교호 방법이로되 듯지 아니하도다
 하는님이여 그 일에 나를 부지르시옵쇼셔 여호와여 젊은 스모의 어금
 니를 썩거내시옵쇼셔
 여희로 흘너 가는 물파 끼치 소멸케 하시고 살을 겨눌 때에 썩거진 것
 끼치 되게 하시옵쇼셔

여희로 녹아 업서지는 들꿩이와 끼케 하시고 여인의 락터호 여희가
 날빛출 보지못함 끼케 하시옵쇼셔
 가시로 불을 띠매 너의 가마가 더움지 아니하여서 성 나무와 불는
 나무가 광풍에 불려가리로다
 의로온쟈가 원수 갑啄을 보고 깃버흘 거시오 또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씨스리로다
 저판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卷

다윗의 시요 행장을 살피 원불폐망 곡묘에 맞출 노래요 귀호시니 사울이

사울을 보내여 다윗의 집을 칙하고 죽이고 저호 쟤에 지은 거지라

나의 하느님이여 나를 내 원수의 베서 나를 건지시며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의 베서

나를 구원호시옵쇼서

예호와여 너희가 나의 생명을 해호 라고 숨어 기드리며 강호자가 모혀

나를 치랴호는이다 그거하나 나의 범범호을 암호도 아니오 나의 죄를

암호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비록 죄가 업스나 너희가 달녀 나와서 전정을 베프오니 쥐여

써샤 나를 영접호시고 감찰호시옵쇼서

만유의 하느님 예호와는 곳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니 니러나샤 모든

나라를 헌교호시고 무릇 흉악호고 패역호자를 긍휼히 녀이지마시옵

쇼서 (셀나)

더희가 저물께 도라와서 개와 뜻처 지즈며 성을 두루 힝호도다

六

五

四

三

二

一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불지어다 너희가 조괴 입으로 말을 발동며 그 입설에 활도가 잇스니
닐으티 뉘가 드르리오 호도다
여호와여 쥬써서 너희를 우스시며 모든 나라를 비우스시리이다

나의 힘 되시는자여 내가 쥬를 우러려 브랄 거시니 하느님은 나의
눕흔 성이로소이다

나의 하느님이 인조호심으로 나를 영접호시고 하느님 쥬서 나로 호여곰
원슈 갑호을 보케 호시리로다

더희를 주이지마시옵쇼서 우리 백성이니 즐가 호오니 우리 방패 되신
쥬여 능력으로 너희를 류리케 호시며 느져지케 호시옵쇼서

그 임의 죄는 그 임설의 말이라 교만호으로 사로잡힐지니 이는 그
말이 져주호과 거죽 말을 암호이로다

전노호심으로 죠멸호 죠셔 죠멸호자 업케 호시고 하느님 쥬서 야곱을
다스리심을 사롭으로 따뜻한지 알케 호시옵쇼서 (셀나)
더희가 져물께 도라와서 개와 뜻처 지즈며 성을 두루 힝호케 호시옵

쇼서 죠멸호 죠셔 죠멸호자 업케 호시고 하느님 쥬서 야곱을
다스리심을 사롭으로 따뜻한지 알케 호시옵쇼서 (셀나)
더희가 져물께 도라와서 개와 뜻처 지즈며 성을 두루 힝호케 호시옵

十四

155

여희가 류리호며 먹을 거슬 엊고 져호다가 비부름을 엇지못호면 밤을
새리로다

오직 나는 쥬의 권능을 노래호고 아침에 쥬의 인조호심을 놀히 부르
리니 대개 쥬는 나의 환난 때에 놀흔 성과 피흘 곳이 되셨느이다
나의 힘 되시는자여 내가 쥬를 찬양호리니 곳 하느님은 나의 놀흔
성이시오 인조호신 나의 하느님이로소이다

령장을 살펴 증거호 빙합화 푸묘에 맞출 노래니 다윗이 교훈호는

귀호 시라 다윗이 아람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흘째에 지은 거시니
요암이 도라와 에돔을 염쪽에서 치고 일만 이천연을 죽였더라

하느님이여 우리를 봉리시고 우리를 문처드리시고 노옹셨스니 이제는
우리로 회복호게 호시옵쇼서

쥬세서 싸으로 진동케 호시고 씩여지개 호셨스매 그 틈을 기우 쇼서
대개 요동호이로 소이다
쥬세서 쥬의 빅성의께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로 호여곰 비책거리게
호는 술을 마시게 호셨느이다

쥬세서 큰 괴로 쥬를 두려워호는자위께 주사 전리를 위호야 펴게 호셨
느이다 (셀나)
쥬의 올흔 손으로 구원호사 우리위께 응낙호시고 쥬의 스랑호시는
쟈를 건지쇼서
하느님세서 거룩호심으로 말숨호셨스니 내가 깃버 뛰고 내가 세겜을
는호고 숙곳의 골싹이를 척량호리로다
길느았은 내께 속호엿고 모낫세도 내께 속호엿스니 예브라임은 내
머리를 호위호는자요 유다는 나를 위호야 범을 세우는자로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며 에돔에 내 신을 더질 거시니 블네셋 땅에
네가 나를 인호야 즐거히 콘 소리로 부를지이다
누가 나를 인도호야 견고호 설에 드러가게 호며 누가 나를 잇섰려
에돔에 가게 호리오

하느님이여 우리를 봉리지아니호셨느잇가 하느님이여 우리 군수와
富豪 죄는 우리를 도아 터썩호는자위께 버셔나게 호쇼서 대개 사물의 구원

시 륙 십 일 편

벽 십

우리가 하느님을 힘남아 큰 일을 일울 거시니 쥬썩셔 우리의 모든

덕력을 끌으시리로다

마윗의 서니 령장을 식혀
거문고에 맞출 노래라

十二

하느님이여 나의 분녀 알임을

드르시며 나의 피도를 굽어 드르시옵

쇼서

내

모임이

여러질 때에 땋

보더

쥬썩 불너 알외티니 쥬여 내가 올으

지못할 놀은 바회에 나를 잇소 죠서

쥬는 나의 피란을 곳이 되셨스니 견고흔 망터가 되여 원슈를 피흘

곳으로 소이다

내가

영원히

쥬의 장막에 거흐리니

내가 쥬의 늘리 마리우는 아태

피흐겟느이다 (셀나)

하는 님이여 내가 밍세홍을 듯고 쥬의 일홍을 두려워하는자의 업을 내게

주셨느이다

내가 영원히 쥬의 일홍을 두려워하는자의 업을 내게

五

四

三

二

一

쥬썩셔 왕의 날을 더흐샤 그 나이 여러 터에 밋치께 흉시리이다

여가 영원히 하느님 암해셔 위에 안조리니 인조와 진리를 예비흐샤

보호흐게 호시옵쇼서

이 그흔즉 내가 쥬의 일홍을 영원히 찬양흐야 내가 밍세홍을 내가 날마다
갑흐리이다

다윗의 사니 예두둔의 별을 쓰라
령장을 식혀 홀노래라

十六

내 령혼이 오직 하느님을 점점히 브라니 나의 구원이 하느님께로 나는

도다

오직 그는 나의 반석이 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놀흔 성이시니 내가

만히 유통치 아니흐리로다

너희가 얼마 동안 일제히 혼사름을 해흐야 죽이랴흐느냐 그가 너머

저는 담파 갖고 혼들니는 울타리와 굽도다

여희가 오직 그 사름을 그 놀흔 위에서 써러드리기를 도모흐며 거죽

말을 깃버흐며 입으로 복을 빌고 속으로 져주흐도다 (셀나)

三

二

一

四

내가

말을 깃버흐며 입으로 복을 빌고 속으로 져주흐도다 (셀나)

시 륙십이편

빅십륙

나의 영혼아 오직 하느님께 좀亟히 브라라 대개 나의 소망이 하느님

세로 나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높은 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느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영화가 있고 나의 견고한 반석과 나의 피흘
곳이 하느님께 잇도다

빅성들아 너희는 때때로 의지하고 그 압해 너희 모임을 토하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흘 곳이시로다 (셀나)

파연느존자도 헛되고 놀흔자도 거죽되매 만일 저울에 달면 들니리니

다 공괴보다 가볍암도다

강포홍을 의지하지 말고 겁탈호 거슬 헛되히 멋지 말고 저물이 더흘지
라도 모임을 거리 두지 말지어다

하느님께서 혼두번 말씀하신 거슬 내가 드렸스니 곳권능이 하느님께
속호였다 헛셨도다

주여 도호 인조황심이 죄께 속호였스니 죄께서 사름의 험한는대로

십 헛시느이다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대위의 시니 유다 광야에
잇을제에 저운 거사라

하느님이여 주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새벽에 죄를 차조리이다
모르고 궁핍하고 물 업는 땅에서 내 영혼이 죄를 성각하야 목 모르고
내 육례도 죄를 수모하느이다
이럼으로 죄의 권능과 영광을 보라하야 성소에서 내가 죄를 보았는이다
대개 죄의 인조황심이 성명보다 나으니 나의 암설이 죄를 찬양하리
이다

이럼으로 내가 성존할 때에 죄께 찬송하고 죄의 일ーム으로 내 손을
들겟는이다

나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으로 풍족홍을 엊으리니 내 암이 깃든 암설노
쥬를 찬송하리이다
이는 내가 침상에 잇서 죄를 괴여하고 애경에 죄를 무상할 때로 소이다
쥬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스니 죄의 놀기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거히

사록십스편

백십팔

부르리로다 령흔이 고절히 쥬를 쌓으니 쥬의 온흔 손이 나를 붓드시느이다
오직 내 령흔을 차자 멀고 저히는자들이 반드시 짜깁흔 곳에
가리로다 환도의 권세 아래 속흔자 될 거시스 여호의 밥이 되리로다
오직 왕도 하느님을 즐거워할 거시오 무릇 쥬를 두고 명세하는자도
조랑호거니와 거죽 말놓는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의 시니 령장율
석허 훌 노래라

하느님이여 내가 슬피 교흘 때에 드르시고 성명을 보전호아 원수를
무서워하지안케 하쇼서
쥬세셔 악인의 음해에서 나를 숨기시며 잔해함을 헹호는자의 란을
피케 하시옵쇼서
더희가 그 혀를 환도 끽치 련마하고 독흔 말을 살 끽치 겨누어서
술은 곳에서 완전흔자를 쏘고 져호더니 홀연히 쏘고 두려움이 업도다

더희가 스스로 악흔 일에 굿어져서 은근히 덧출 베풀기를 서로 의론
하며 글으니 누가 보리오 흐도다
더희가 악을 도모하고 또 날으기를 우리가 예비호 거시 묘호 비교라
호니 각사름의 속 뜻과 모임이 깁도다
오직 하느님이 더를 쏘실지니 홀연히 살에 상호리로다
이럼으로 더희가 엄드러지고 그 혀가 도로혀 조괴를 해할 거시니 무릇
더희를 보는자가 고기짓호리로다
못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느님의 일이라 흐고 또 그 흥호신 거슬 깁히
성각호리로다

의로운자는 여호와를 인호야 즐거워하며 또 의지호 거시오 모임이
정직호자는 다 조랑호리로다

다윗의 노래로 시니 령장율
석허 훌 노래라

하느님이여 시온에서 쥬를 쟁쟁히 봤라고 찬송호오니 명세함을 쥬세
갑호리이다

시 륙 십 오 편

빅 이십

괴도를 드르시는 주여 무릇 혈과 잇는자는 주세로 나아오리이다
 악훈 일이 나를 이괴니 우린의 범죄함을 주세서 써서 브리시리이라
 주세서 빼사 주세로 나아와 주의 산에 잇게 혼자는 복 잇는자니 우리가
 주의 집 곳 성던 성소의 은혜로 풍족함을 엊으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느이여 주세서 위엄을 베프샤 공의를 조차 우리의
 응낙하시리니 짜 쟁흐로 바다 모동이서자 잇는 모든자의 의탁하는
 주시로 소이다

조괴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퀸능으로 썩를 썩우셨도다

바다의 우는 것과 물결의 우는 거슬

굿치께 호시도다

짜 쟁해 거흔자가 주의 이적을 두려워호오니 주세서 히듯고 히지는

곳으로 흐여곰 즐거히 부르게 호셨느이다

주세서 짜를 훤고호샤 물을 대시며 심히 기름지께 호시고 하느님의
 하슈가 물이 초스니 주세서 이곳치 짜를 예비호야 곡식을 끄초느이다
 주세서 그 밧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며 그 이랑을 놋초시고 둔 비로

율희에 호시며 그 짹을 복 주시느이다

주세서 선호심으로 원 일년을 면류관을 썩우시니 주의 지나시는 갈애
 곳 기름이 썩러지는도다

들의 풀 밟해 썩러지니 모든 적은 산이 즐거움으로 썩를 썩엿도다

풀 밟흔 양의 무리로 납하시고 그 골짜이는 곡식으로 덤헛스니 소리
 지르고 또 노래호도다

노래요 시니 령장울
식혀흘 노래라

원 짹 사람들아 너희는 즐거움으로 하느님세 부를지어다
 그 일홈의 영화를 찬양흘지니 주세 영화를 돌녀 찬송흘지어다
 하느님을 향호야 날으기를 주의 흥호심이 심히 엄호시니 주의 크신
 능력을 인호야 주의 원슈가 주세 거죽 복종흘리이다 흘지어다
 원 짹 사름이 주세 경비호고 찬양흘 휴의 일홈을 찬양흘리이다 (셀나)
 너희들은 와서 하느님의 흥호시는 일을 보라 인성의 계 흥호시는 거시
 위엄이로다